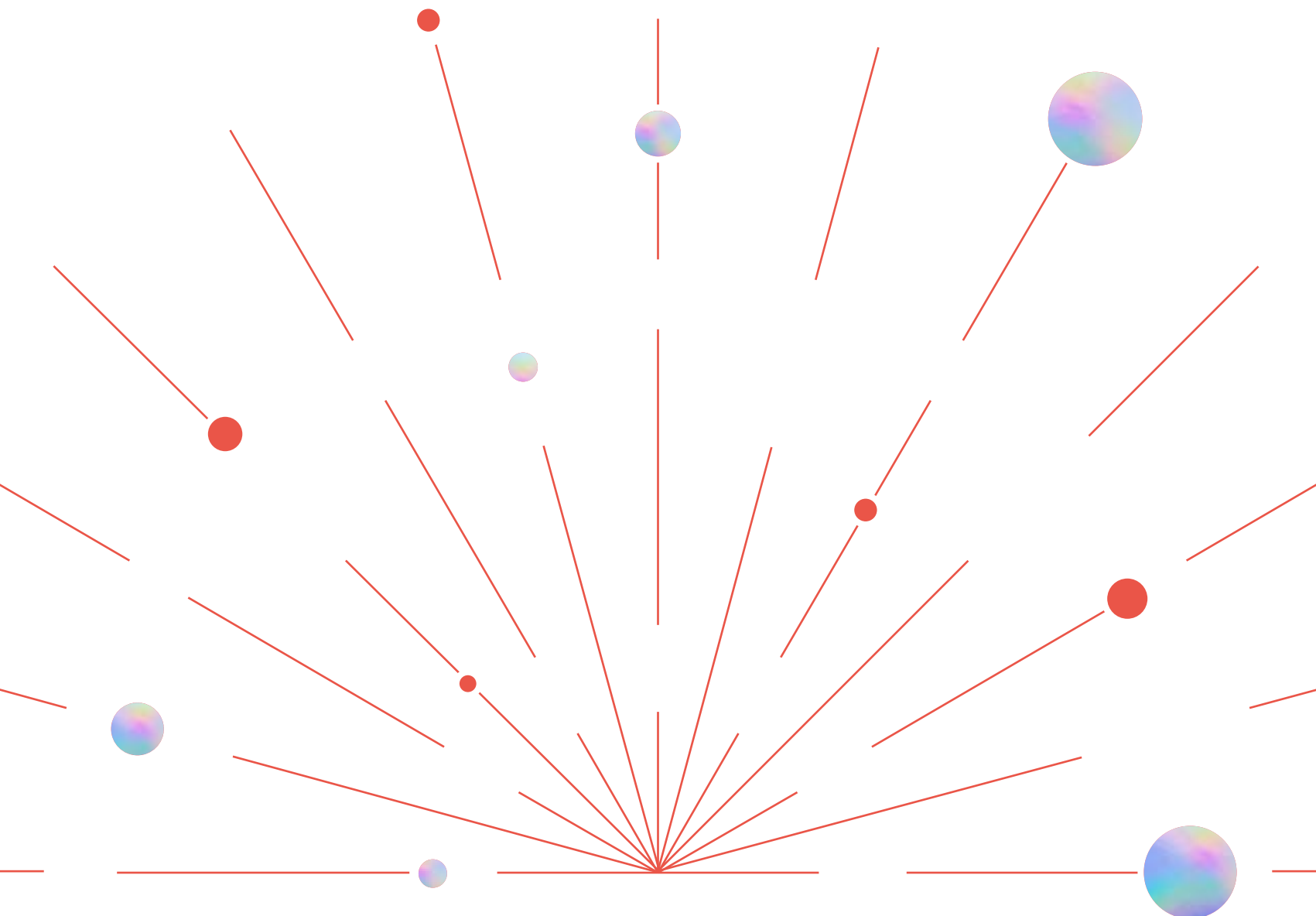


의료의 미래
나눔의 행복
서울대학교병원 매거진

Uom:

VISION OF MEDICINE

2025. winter
vol.48



Special Theme: Link up for Community

Question

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Angle

김남중
감염내과 교수

Link

세계 의료를 향한 새출발
배곧서울대학교병원

Doctor's day

양석훈
순환기내과 교수

Across Time

스타트렉의 영웅 스팩이
로봇 페이스 수술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간절함에 응답하겠습니다

VOM 지면에서 후원인과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장으로서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암 치료를 위해 걸어온 길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이 생긴 것은 2011년 3월이지만, 서울대학교병원은 140년 전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제증원 시기부터 암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암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암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세월 연구, 예방, 진단, 치료에 힘써온 것이지요. 병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암 진료 시설을 한곳으로 모은 서울대학교암병원의 개원은 암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병원, 가장 신뢰하는 병원이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암이라 해도 사람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에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환자의 암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FIRST 암패널과 POLARIS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신 항암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암 환자 전용 임상시험 시설인 중앙임상시험센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치료 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충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4월에는 수술장 리모델링을 완료함으로써 41개였던 수술실을 52개로 늘렸고, 하이브리드 수술실, 로봇 수술실, 음압 수술실 등 최첨단 시설도 갖췄습니다. 덕분에 수술 대기 시간이 대폭 줄었고, 환자분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치암 환자분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로 방사성 암치료제인 테라노스틱스를 이용한 치료를 시작했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치료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를 이용한 CAR-T 치료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의 치료제를 안전하게 투여하는 시스템을 확립했고, 자체 개발 치료제로 더 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7년 최첨단 중입자치료센터가 문을 열면 차세대 암 치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 여정에서는 첨단 진단 기기나 치료제만큼이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서적 돌봄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암병원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암정보교육센터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강좌로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을 이해해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돕는 곳이지요. 암재활의학, 정신종양학, 암건강경영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몸과 마음의 고통을 함께 돌보는 암통합케어센터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은 결국 한 방향을 향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암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질병으로 여겨지는 그날까지, 서울대학교암병원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UOM

김동완 서울대학교암병원장 최선의 항암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혈액종양내과 의사이자 암 임상시험 연구자입니다. 암 극복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분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에 다학제진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국내 중앙내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중앙내과학회 이사장으로서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의 국제 학술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암치료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각 전문분야의 다학제 협력을 강화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Contents

2	Looking Ahead	여러분의 간절함에 응답하겠습니다 김동완 서울대학교암병원장
<i>Special Theme: Link up for Community</i>		
4	Opening	의학에 대한 헌신, 사회를 향한 의료
6	Question	의료 현장에서 배운 돌봄의 언어 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8	Angle	‘국민의 병원’이라는 책임 김남중 감염내과 교수
10	Link	세계 의료를 향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새출발 배곧서울대학교병원
16	Horizons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20	Closing	치료를 넘어 시스템을 바꾸다
22	Hello, SNUH	새로워진 공간, 달라진 겨울 풍경 박지영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진료행정팀
25	Doctor's day	쉽 없이 뛰는 하루, 전통을 잇는 발걸음 양석훈 순환기내과 교수
30	Pioneer	혁신적 접근으로 치료의 시작점을 바꾸다 김봉년 교수 연구팀 & 조영민 교수 연구팀
34	Across Time	로봇 폐이식 수술은 스타트렉의 영웅 스팩에게 장수와 번영을 가져다줄까? 살덩이_FUNKY SCIENCE,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37	First & Next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개원 40주년
38	Campaign	치료의 길을 혼자 견지 않도록 저소득층 환자지원기금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40	Donation View	함께 걸어온 140년, 내일을 향한 약속 2025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의 밤
46	Donation Interview	사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이 하나 강경미 후원인
50	SNUH Network News	
54	Donation News	
55	후원인 명단 & 후원인 예우	
59	SNUH Link	

의학에 대한 헌신, 사회를 향한 의료

질병 앞에서 환자는 평등해야 하며, 치료의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국가중앙병원은 바로 이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러한 사명 아래 국내 최초로 감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희귀질환 네트워크를 만들며, 혁신 치료의 문턱을 낮춰왔다. 개인의 치료를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인류의 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진정한 치유는 환자와 의료진, 병원과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될 때 시작되고 그 결과로 의학과 의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Research

치매뇌은행(2015)

2015년 설립되어 뇌 조직 기증과 보관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 연구의 기초 인프라를 마련했다.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 기반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장기 연구를 선도한다.

Link Up for

Pioneer

감염관리센터(1991)

국내 최초 감염관리실 설치로 병원 내 감염 예방이라는 새로운 의료 안전 기준을 제시했다. 선구적 제도 도입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가 감염관리 체계의 토대를 마련했다.

Quality

교육전담 간호사

신입 간호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적응을 위해 2009년 국내 최초로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그 성과를 입증해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가 타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Hope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극복사업(2021)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부한 3천억 원을
재원으로 2021년 출범해 전국 200여 개
의료기관과 협력한다. 소아암과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 생명에게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며, 미래 세대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전한다.

Network

희귀질환센터

2011년 개소 후 2019년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로
선정되면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진단의 방랑을
끝내고, 소외된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연결한다.

Community

2025 vom winter

Response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2024)

2024년 국내 최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어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중증 응급
질환에 신속히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권역별 센터를 연결해
시간과 싸우는 생명을 구한다.

Innovation

병원 자체 생산 CAR-T 치료(2022)

2022년 국내 최초로 병원이 자체 생산한 CAR-T 치료제로 백혈병 환자
치료에 성공했다. 4년간의 연구 끝에 고가 치료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투여까지의 기간도 3주에서 12일로 단축했다. 의학 본질에 대한 헌신으로
혁신 치료의 접근성을 연 것이다.

‘돌봄’이라는 단어를 기사에서 수도 없이 써왔지만, 정작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부모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고 의료 현장을 취재하다 보니, 돌봄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의료와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담과 미안함 사이

돌봄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장면을 떠올릴까. 주로 30대 후반, 40대 초반인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비슷하다. ‘부담’, ‘독박 돌봄’, ‘무서움’, ‘힘듦’. 부모님이 하나둘 중병을 얻기 시작하고 병원 동행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 세대에 돌봄은 책무이자 고통에 가깝다.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미안함’이다. 몇 년 전부터 부모님의 병원 예약을 맡고 진료 내용을 정리해 다시 설명하고 다음 일정을 챙기라고 당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이 설명 있었는데 왜 모르시냐”, “그렇게 미루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시냐” 같은 말을 쏟아낸다. 그러고 나면 늘 후회가 남는다. 어릴 적 자랑이던 부모님은 어느새 작아졌고 대형 병원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긴장한다. 진료실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대신 정리해 전하고 때로는 의사선생님께 ‘구중’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래서 돌봄은 손이 많이 가고, 지치고, 부채의식이 달라붙는 일이다. 객관적인 정의가 궁금해서 시에게 ‘돌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의료 현장에서

더 나은 돌봄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의료개혁’ 같은 큰 단어를 먼저 떠올리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은 그런 말로는 잡히지 않는 작은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의료개혁보다 중요한 순간들

지난해 11월에는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을 취재했다. 인근 보건지소에서 공보의가 진료를 보러 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보건진료소에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든다. 의료장비가 많지 않은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진료는 제한적이고,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읍내 병원에 나가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진료실을 나서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음식만 먹으면 설사를 한 지 오래돼 괴롭다”라고 호소하던 어르신에게 공보의는 “당뇨 합병증으로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있을 수 있으니, 더부룩하지 않게 천천히 드시라”라고 설명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놓은 듯했다. 진료를 마친 이들은 대기실에서 각자의 진료 경험을 한참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더 나은 돌봄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의료개혁’ 같은 큰 단어를 먼저 떠올리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은 그런 말로는 잡히지 않는 작은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진료실에서 건네는 차분한 설명 한 줄, 환자가 털어놓은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짧은 침묵 같은 것이 누군가에겐 치유를 향해 딛고 나아가 힘어준다. 어쩌면 좋은 돌봄은 거창한 제도보다 이런 순간들을 잊지 않고 미세한 움직임에 오래 귀 기울이는 일에서 시작될지 모른다. UOM

37년 차 동네의원이 남긴 질문

동시에 머릿속에는 자꾸 ‘우리는 어떻게 곁에 머물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 맴돈다. 돌아보면 내가 매일 쓰는 기사들도 결국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시도였는지 모른다. 지난 1~2년간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외면받는 필수 의료 수가를 어떻게 높일지, 모두가 3차 병원으로 쏠리지 않게 동네의원에서 보살핌을 받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같은 문제를 붙들고 취재했다. 그런 과정에서 만난 장면 몇 개가 오래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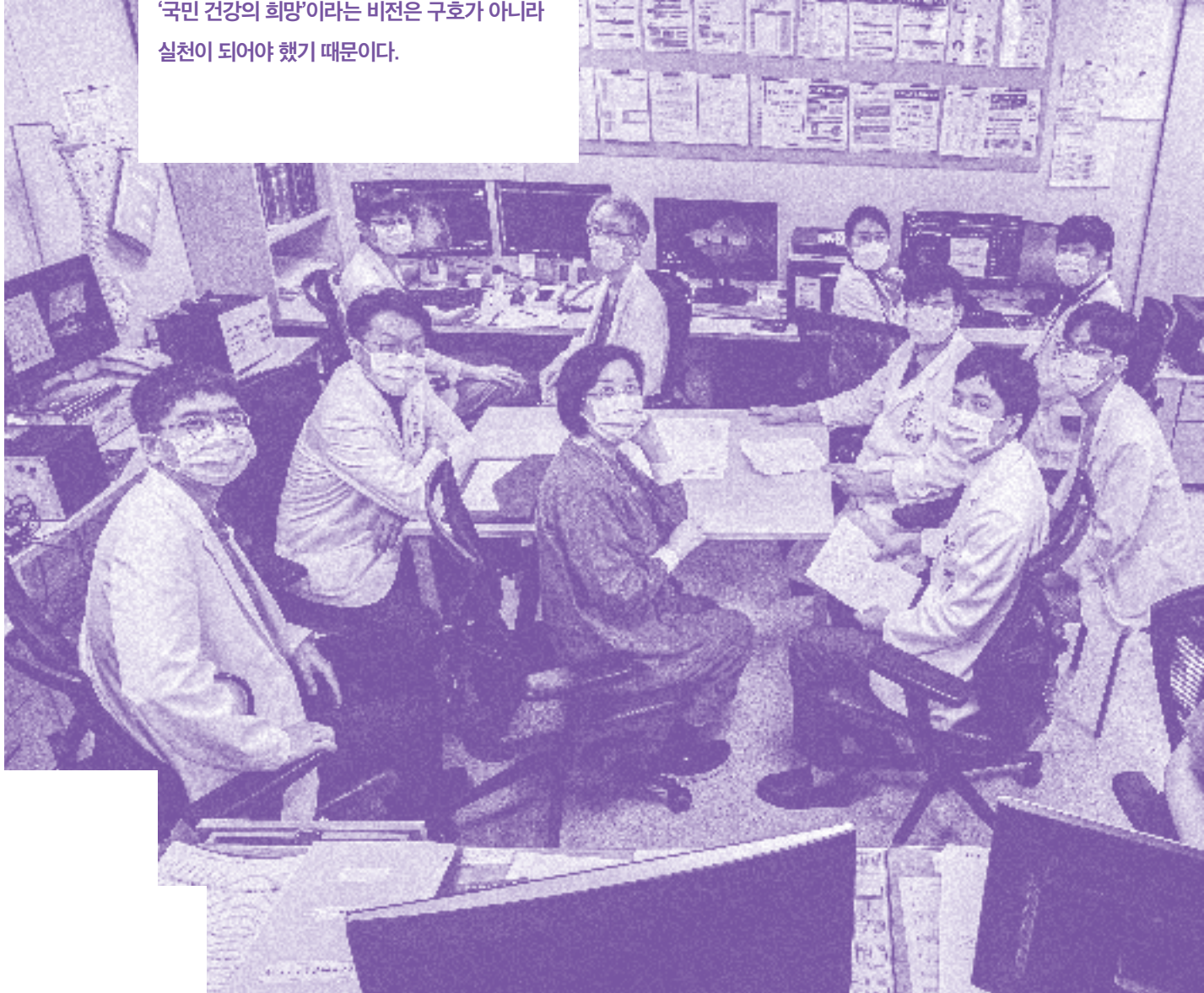
지난 8월, 37년간의 진료를 마치고 문을 닫은 서울 성동구 ‘성수의원’의 마지막 일주일을 취재했다. 환자들에게 이 병원의 진료가 무엇이 달랐는지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질문이 달랐다”라고 답했다. 한 환자는 “대학생 때부터 이 병원에 다녔는데 올 때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물으셨다”라고 말했다. 아픔이 근무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피기 위한 질문이었다. 장애 아이를 돌보는 엄마에게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라고 꼭 안부를 건넸다. 그런 질문을 받다 울음을 터뜨리는 환자에게 의사는 무심한 듯 티슈를 내밀었다. 나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다. 과장된 위로나 극적인 관심이 아니어도 의료진이 던진 차분한 말 한 마디가 오래 버티게 해준 순간들이다. 가까운 가족이 위암 수술을 앞두고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여러 주의사항을 설명하던 의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근데 또, 우리 위는 생각보다 적응력이 강합니다.” 가족이 걱정될 때면 나는 이 말을 붙잡고 여러 번 곱씹었다.

배운 돌봄의 언어

‘국민의 병원’ 이라는 책임

20년 이상 감염 전문가로 일하며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등 강력한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여러 차례 겪었다. 그때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연구, 정책 자문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다. 위기 앞에서 ‘국민 건강의 희망’이라는 비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내외 지침 작성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환자를 치료하며 얻은 지식이 다른 나라, 다른 병원의 치료 방침이 된 것이다.

임상에서 국가 대응까지, 지침을 만드는 병원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와 동시에 연구와 정책 자문에도 힘써 왔다. 메르스 시기에는 감염환자의 항체 역가, 바이러스 역가 변동 등을 연구해 주요 의학저널에 발표했고, 코로나19 때는 전파 방식,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효과, 감염환자의 항체 역가 등을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내외 지침 작성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환자를 치료하며 얻은 지식이 다른 나라, 다른 병원의 치료 방침이 된 것이다.

연구 성과는 자연스럽게 정책으로 이어졌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염전문가들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장, 대한백신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학계를 이끌었다. 동시에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위원 혹은 위원장으로 진료 지침과 백신 정책 등 정부 대응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병상에서 얻은 임상 경험이 연구 논문이 되고, 그 연구가 국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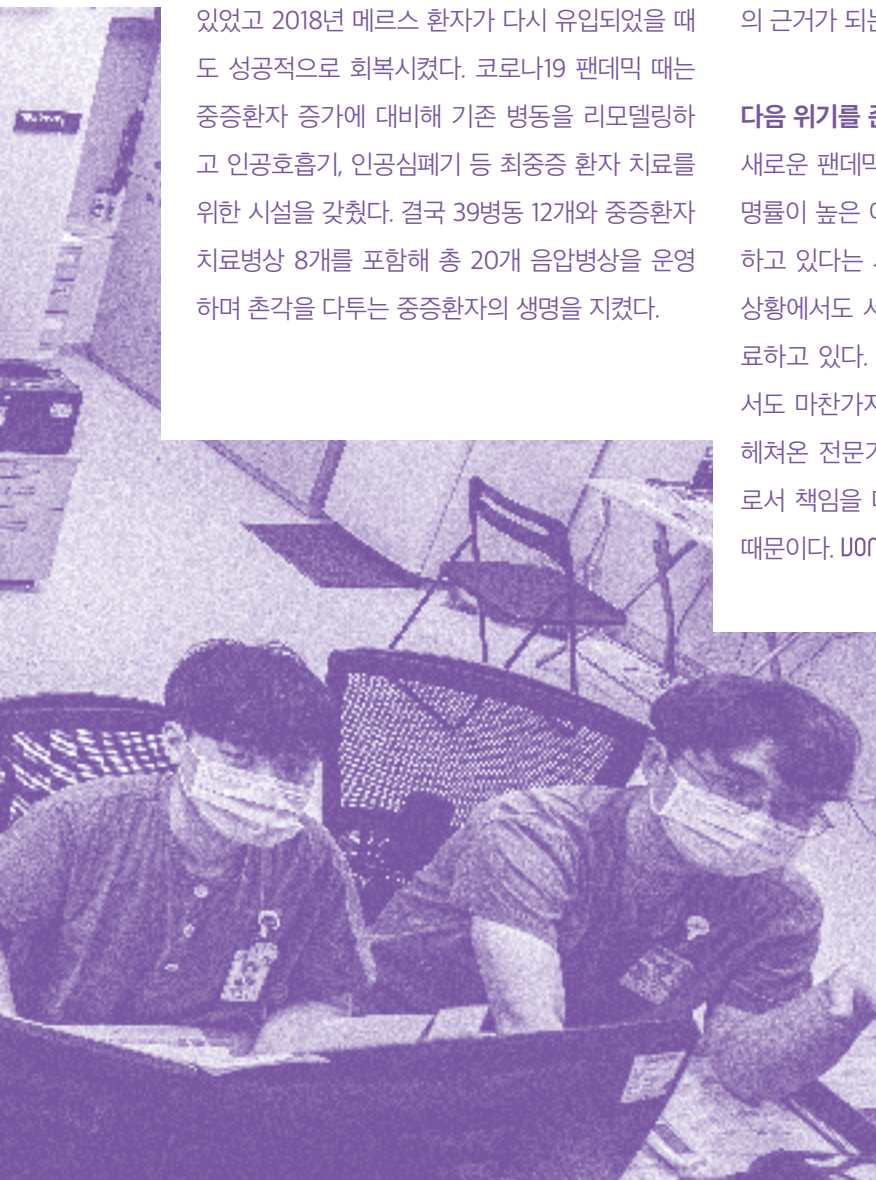
다음 위기를 준비하며

새로운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최근 치명률이 높은 에볼라 의심 환자가 간헐적으로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안정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예고 없이 찾아올 수많은 질병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팬데믹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온 전문가들 모두가 국가중앙병원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UOM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

2000년 이후 신종인플루엔자(H1N1),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infection), 코로나19(COVID-19), 옴폭스(mpxv) 등의 감염병이 발생했다. 그중 신종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였다. 반면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옴폭스 대응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몇 곳의 의료기관에서 전담했다. 평소 진료에서 환자 수는 적지만 꼭 필요한 치료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앞장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는 39격리병동 전체를 감염환자 진료를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환자 진료에 참여할 의료진을 모집했다. 혹시 지원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던 것과 달리 많은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덕분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2018년 메르스 환자가 다시 유입되었을 때도 성공적으로 회복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기존 병동을 리모델링하고 인공호흡기, 인공심폐기 등 최종중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췄다. 결국 39병동 12개와 중증환자 치료병상 8개를 포함해 총 20개 음압병상을 운영하며 촌각을 다투는 중증환자의 생명을 지켰다.



세계 의료를 향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새출발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조감도

배곧서울대학교병원

9월 29일 열린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은 경기 서남권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자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의 다음 도약을 여는 신호탄이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바이오 특화단지, 지역 의료기관을 잇는 거점 병원이자 미래형 스마트병원으로서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이 가져올 패러다임 변화를 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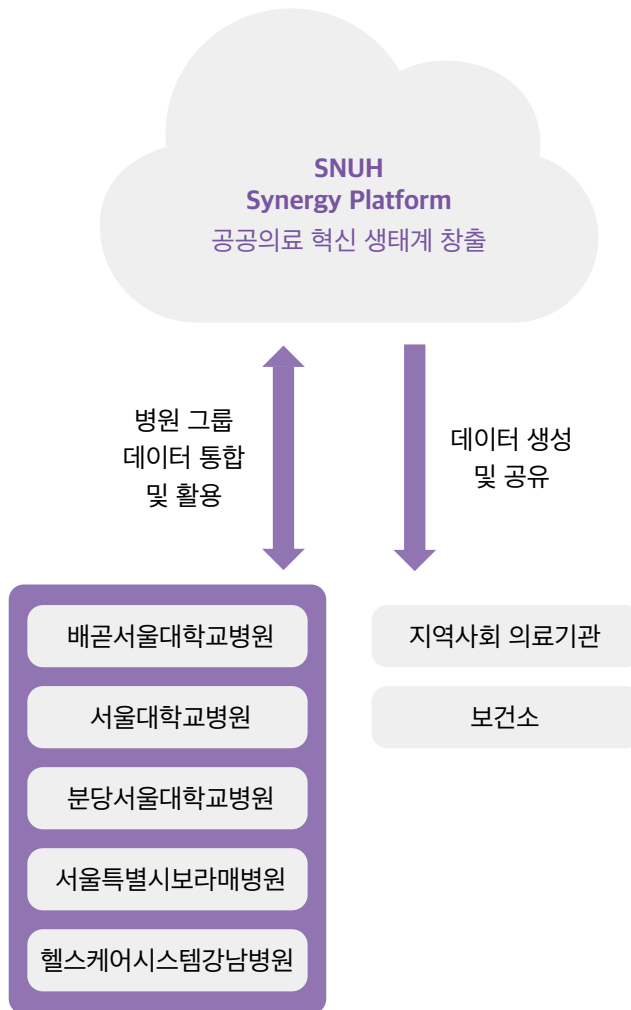
‘전에 없던 병원’을 그리며 걸어온 길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은 시흥시의 필요와 서울대학교병원 비전이 정확히 만난 결과다. 시흥시의 인구는 50만 명이 넘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 유출률이 66%에 달한다. 암 등 난치성 질환 환자의 98%가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상황이며, 임신·출산 관련 유출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이 일대 인구가 2020년 80만 명에서 2035년 10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산업재해로 인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도 절실하다.

이에 2019년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시흥시, (주)배곧신도시지역특성화타운과 새로운 분원 설치에 대한 협약을 맺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병원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할 무렵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 폭등으로 예산이 부족해졌고, 가까스로 총사업비를 증액받은 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예산 탓에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후 뜻하지 않은 의정사태로 병원재정이 직격탄을 맞으며 분원 설립의 당위성이 흔들리게 되자 시흥시에서 총사업비 중 10%를 지원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첫 삽을 뜨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긴 시간이 걸린 것은 외부 요인 탓만은 아니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교육, 연구 중심의 미래형 병원을 구상했기에 정부기관을 설득할 새로운 병원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했고, 서울대학교병원 그룹 전체의 공감을 얻어야 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미래의료 클러스터를 세우다

미래병원으로서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의 청사진은 첨단의료 기술이 개발 및 구현되는 병원, 시공간을 초월한 데이터 중심 병원이다.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안에 들어서게 되는데, 대학과 병원이 같은 캠퍼스에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 그룹 역사상 최초 사례다.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단장을 맡은 신경외과 박철기 교수는 “학문의 융합 측면에서 보면 통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도보 10분 이내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대면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우연히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특별하다”라며 의의를 짚는다. 의학자와 각 분야 전문가가 캠퍼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융합 아이디어를 꽃피울 수 있다는 기대다. 시흥캠퍼스가 가까이 조성 중인 사·바이오 융복합 연구단지인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이 대학과 산업계, 연구소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최초인체적용 임상시험(First-in-Human study)이

나 개념증명연구(Proof-of-Concept study)다. 이러한 초기 임상연구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법적·제도적 문제에 더해 산·학·연·병의 협업이 원활해야 하는 탓에 그동안 국내에서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였다.

“가끔 세계 뉴스를 보면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사지마비 환자가 움직인 사례 등이 보도되죠. 아직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다른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죠. 이러한 초기임상을 배곧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면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어의 역할을 넘어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연구와 교육을 위한 공간이 병원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때의 ‘교육’은 인턴이나 레지던트 대상의 진료 트레이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R&D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나 산업계 전문가 교육을 뜻한다. 연구 현장이 곧 교육 현장이 되는 셈이다.



유연함과 혁신성으로 설계하는 새 병원 모델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는 신생병원’이라는 점에서 진료 역량에 대해 우려할 수 있지만, 배곧서울대학교병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사이언스를 이용해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의료 경험과 지식을 집대성해 이식한다면, 시간을 초월하여 젊지만 노련한 병원으로 출발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병원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혁신도 더할 예정이다.

진료조직과 공간계획도 기존의 진료과 중심에서 벗어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료프로그램 중심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질환별 진료프로그램 중심으로 관련 의료진이 모여 센터를 구성해 최적의 팀을 항상 경쟁력 있게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간을 초월해 서울대학교병원 그룹 내에서의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피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알찬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실과 병동도 마찬가지로, 공황에서 운항 편에 따라 탑승구를 매일 바꾸듯 환자 수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진료공간을 배정해 공간 효율과 환자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돋보인다. 공공의료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은 ‘SNUH Synergy Platform’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도 이를 공유한다. 지역사회 의료기관들은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의 검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보통 1차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 3차 병원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시흥시나 인근 지역 1차 병원에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배곧서울대학교병원에 바로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차 병원에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환자를 배곧서울대학교병원으로 보내고,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 환자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박철기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학교병원 그룹 도약의 전환점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에 끼칠 영향은 더 크다. 앞서 언급한 SNUH Synergy Platform은 지역 의료기관 공유에 앞서 서울대학교병원 그룹 내부를 먼저 통합하는 플랫폼이다. 본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은 같은 의무기록 전산 시스템을 사용해왔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오랜 시간 독립적으로 진화하면서 사실상 별개의 병원처럼 작동해 왔다. 각자 쌓은 의학 지식이나 진료 경험을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의 개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다. 새 병원을 지으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산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룹 내 병원들에도 함께 적용한다면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은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을 허브로 한몸처럼 움직이며 전체의 진료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다.

2029년 개원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가 일상화된 시대에 개원하는 첫 대형 병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끊임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에 단순히 적응하기보다는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설계된 덕에 어떤 변화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병원이자 서울대학교병원 그룹 전체의 대표 미래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기 교수는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의 지향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그동안 국내 의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이 우리 국민 전체가 세계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UOM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 미래형 스마트병원 첫걸음



2025.09.29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이 경기도 시흥시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2019년 설립 협약 체결과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추진된 사업으로, 착공식에는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지하 1층~지상 12층, 연면적 111,492㎡, 80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 약 5,872억 원이 투입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조건에 부합하는 진료과를 모두 망라하고 다양한 특화

진료센터를 운영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필수의료료를 강화하고,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데이터를 AI·네트워크 시스템과 접목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인프라를 연계해 공공의료 협력 모델을 강화한다. 또한 인근 서울대학교 캠퍼스 및 바이오특화단지와의 협업을 혁신 의료기술 개발·표준화를 추진하며, 자동화 모빌리티와 로봇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 미래형 스마트병원 구현도 계획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시흥시민의 숙원사업이 현실이 된 순간”이라며,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해 병원 건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시민과 국가가 체감할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은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이 경기 서남권 필수의료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서울대학교병원 그룹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학·연·병·관이 집적된 광역 연계형 바이오클러스터를 통해 미래의학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바이오 연구·산업 성장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ini Interview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병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박철기/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단장
(신경외과 교수)

건립 계획 발표 후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는데, 첫 삽을 뜨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때로는 계획이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은 한 발 한 발 걸어왔습니다. ‘인간 중심의 혁신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과 질병 관련 난제를 해결한다’는 새 병원의 미션, 미래의료 클러스터를 세우겠다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물론 AI·바이오 융복합 연구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ABC, 즉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ultivation(문화)를 모토로 내건 시흥캠퍼스와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이 완성되면 대학의 AI·바이오 인재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겠죠. 그 결과로 병원·대학·산업계가 인공지능·바이옌를 중심으로 진짜 제대로 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워낙 빠르게 변하는 시대인 만큼, 2029년 개원까지는 다양한 기회와 크고 작은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부터 착공까지 그랬듯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은 현명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의료를 선도하는 미래의료의 개척자’라는 비전을 되새기며 국내외 의료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병원으로 우뚝 서리라 기대합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겨울 한낮의 스톡홀름은 투명한 빛으로 반짝인다. 말라렌 호수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유리 조각처럼 반짝이고 솔나로 향하는 트램 창밖으론 붉은 지붕의 마을과 자작나무 숲이 물결처럼 스쳐 간다. 그 길의 끝에 닿으면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관하는 카롤린스카 의대와 스웨덴 공공의료 혁신의 심장이라 불리는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연구와 돌봄이 맞닿은 이곳은 스톡홀름 공공의료(Region Stockholm)의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의 내일을 설계하고 있다.

*Karolinska
Universitetssjukhuset*

공공성에 전문성을 더하다.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긴 겨울이 이어지는 북유럽의 나라, 스웨덴에서 햇빛은 그 무엇보다 귀한 자원이다. 그래서일까,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의 병동은 단 한 줄기의 자연광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다. 햇살이 잘 닿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커다란 창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빛이 병동 구석구석을 채운다. 그 빛은 이 병원의 철학을 닮아 있다.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은 모든 환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모범'을 보여준다. 그 의미는 단순한 균등 서비스 제공을 넘어선다. 연구와 임상을 통합하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환자 중심의 시스템 개혁으로 '공공성'에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의료복지 선진국 스웨덴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공식 개원은 1940년이지만 그 뿌리는 18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카롤린스카 연구소와 병원은 긴밀히 협력해 최신 연구 성과를 빠르게 임상 치료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렇다면 북유럽 최

대 규모이자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5대 병원'에 이름을 올린 카롤린스카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 해답은 스웨덴의 국가 제도 NHV(Nationell högspecialiserad vård)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희귀하거나 고난도 질환의 치료를 최대 다섯 곳의 기관으로 집중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국가 정책이다. 카롤린스카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중앙화 라이선스를 보유한 병원 중 하나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DSD(성분화 이상), EXIT procedure(자궁 외분만 중 치료), Fosterterapi(태아 치료) 등 A부터 Z까지 세분화된 고난도 진료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 간 이식 수술 분야에서의 성과는 탁월하다. 1984년 스웨덴 최초로 간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2,000건이 넘는 수술을 시행했다. 성인뿐 아니라 소아 환자에게도 이식 치료를 제공하며 혈우병·HIV·가족성 아밀로이드 신경병증·간세포암 등 복합 질환에서도 탁월한 치료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의 모델

공공의료는 무엇보다 '위기'에 강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앞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원칙을 가장 철저히 실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카롤린스카 외상센터(Trauma Center Karolinska, TCK)다. 스웨덴 최대 규모의 중증 외상센터인 이곳은 성인부터 소아까지 아우르는 심각한 외상 환자를 치료한다. 스웨덴에서 외상은 44세 이하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며, 매년 약 1,400건의 외상 환자가 접수되고 그중 약 350건이 중증이다. 카롤린스카는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초기 개입을 강화해 외상의 장기적 후유증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위기 대응의 철학'은 일상의 응급 현장을 넘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2021년, 카롤린스카 병원은 210만 건이 넘는 PCR 검사를 수행하며 스웨덴 방역의 중추 역할을 했다. 임상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실

시간으로 치료에 반영해 팬데믹 대응의 최전선에서 공공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병원은 높은 진료 생산성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2년 연속 의료서비스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고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24년에도 지역이 위탁한 진료량의 106%를 수행하며 5년 연속 목표를 넘어섰다.

이런 위기 대응의 성과는 카롤린스카가 단기적인 효율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병원은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지역사회와 조직의 동반 성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모두에게 평등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고 인권·성평등·아동권리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쌓아왔다. 또한 환경경영과 재정 안정화를 통해 연구·운영·재정이 선순환하는 병원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카롤린스카의 사례는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이 단순한 재정 자립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위에 세워진 공공성의 확장임을 보여준다.

about
**Karolinska
Universitetssjukhuset**

설립 연도
1940년

위치
스웨덴 스톡홀름 카운티,
Solna 캠퍼스(북쪽)와
Huddinge 캠퍼스(남쪽)

평균 병상 수
1,059병상

의료 인력
약 **16,000**명
의사 약 3천 명(19%) 포함

**중증 및 희귀 질환
치료 중심 기관**
스웨덴 전국 고난도
전문진료를 맡는 핵심
대학병원으로, 장기이식·
암·희귀 유전질환 등
가장 복잡한 중증 환자를
다학제 팀으로 치료하는
국가 레퍼런스 센터
역할을 수행

**전문·중증 의료 (highly
specialized care)**
담당 핵심 병원

**스웨덴 공공의료
(Region Stockholm)의
핵심 거점**
세금 기반 보편적 의료체계
안에서 중증·희귀질환
고도 전문진료를 담당.
카롤린스카 의대(Karolinska
Institutet, KI)와 연계해
연구·교육·임상시험을
통합한 국가적 공공의료·
정밀의료 허브 역할 수행.



연구와 임상을
 하나로 묶고,
 공공의료 안에서
 중증·희귀질환까지
 책임지는 카롤린스카는
 ‘모두를 위한 의료’가
 어떻게 지속가능한지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모델이다.



환자 중심의 시스템 개혁, 뉴 카롤린스카 솔나

2018년, 카롤린스카 병원은 또 하나의 의료 역사를 썼다. 새롭게 문을 연 뉴 카롤린스카 솔나(New Karolinska Solna, NKS)의 병실을 100% 1인실로 설계한 것이다. 단순한 건축 혁신이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철학의 결정체였다. 하나의 병실에는 침대 하나와 화장실 하나, 그리고 한 명의 환자를 위한 온전한 공간만이 존재한다. 이 단순한 구조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완벽에 가깝게 보호한다.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환자 플로 캡틴(Patient Flow Captain)’과 1대 1로 연결되어 진료의 전 과정을 함께한다. 진료가 ‘절차’가 아니라 ‘동행’이 되는 순간이다.

카롤린스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기존의 내·외과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암·심혈관질환·감염병·고령질환·여성·아동·신경질환 등 7개 분야로 나눈 테마 치료(Theme-based Care)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협진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이처럼 한발 앞선 시스템 덕분에 뉴 카롤린스카 솔나는 의료의 미래를 현실로 구현한 병원으로 불린다. 그들의 노력 앞에서는 ‘공공의료는 균등하지만 표준화된 서비스에 머문다’는 편견이 자연스럽게 무너진다.

물론 북유럽의 공공의료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병상 부족, 긴 대기 시간, 지역 간 접근성 문제 등 현실의 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은 공공성과 전문성, 그리고 환자 중심 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며 의료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카롤린스카의 사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통계나 제도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 사람의 환자가 단순한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와 돌봄, 제도와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있다는 사실 말이다.

공공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어쩌면 그리 거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의료는 결국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 단순한 진실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카롤린스카의 철학과 실행을 참고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비전을 함께 그려가길 바란다. UOM

치료를 넘어 시스템을 바꾸다

환자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외래,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진,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병동 등. 서울대학교병원이 만든 변화들은 의료 자체를 넘어 사회가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도였다. 개인 정보 침해, 퇴원 후의 돌봄 공백, 24시간 간병으로 인한 고립 등 진료실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을 발견해 해결책을 찾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렇게, 의학 발전만큼 의료가 작동하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해 왔다.



편의를 넘어 환자의 권리로 환자 이름 없는 진료

2019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에서 환자 이름이 사라졌다. 대신 진료 접수를 하는 환자에게 당일 사용할 'A0000'과 같은 고유 번호를 부여했다. “김철수 님, 들어오세요” 대신 “A0000 님, 들어오세요”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번호는 채혈실부터 각종 검사실, 약국, 마지막 수납까지 모든 외래 공간에서 사용된다. 다만 진료실 안에서는 번호를 착각해 환자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이름을 불러 다시 확인한다. 개인 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서울대학교병원이 앞장섰다. 환자들은 제도 도입 후 복잡한 외래 공간에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발생하던 개인 정보 침해와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동이 사라져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전까지 병원에서 환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당연한 관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불편에 귀 기울이며 개인 정보 보호는 환자의 권리라는 인식을 한발 앞서 실천했다.



돌봄을 함께 나누는 방법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하루 평균 14.4시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의 주 양육자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다. 여기에는 17.7회의 흡인치료, 6.8회의 자세 변경, 6.4회의 영양 공급이 포함된다.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주 양육자는 하루에 6시간도 채 못 잔다. 한 마디로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퇴원한 뒤 중증소아 환자에 대한 돌봄은 전적으로 가정의 몫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국가 및 병원 중심의 재택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어왔지만, 국내에는 마땅한 시스템이 없었다.

2019년 1월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최초 사례다. 사업 시작 당시부터 참여한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직접 가정으로 보내 진료와 의료기기 사용법 교육 등을 진행하며 정규 시간 상시 전화·문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58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이 시도는 점차 확산되어 2022년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2025년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참여하며 중증소아 필수의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다.



독립형 단기의료돌봄센터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한결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왜 이 아픔은 온전히 가족의 몫일까?” 국내에서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의료기기에 의지하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4천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뒤에 숨은 가족의 숫자는 상상 이상이다. 이들 특히 주양육자에게는 시간의 자유가 없다. 국내 최초 독립형 단기의료돌봄센터인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이하 도토리하우스)는 이들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2023년 문을 열었다. 넥슨재단과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병원이 의기투합한 결과다. 도토리하우스에는 인공호흡기, 산소흡입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 환자가 보호자 없이 최장 7박 8일, 연간 30일까지 머물 수 있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음악 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개소 1년간 226명이 도토리하우스에 머물 덕분에 보호자들은 미뤄뒀던 건강검진을 받고, 다른 자녀와 여행을 떠나고, 새 생명의 탄생을 맞이했다. 간병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는 대신, 병원이 돌봄 시스템 자체를 만든 사례다. UOM

새로워진 공간, 달라진 겨울 풍경





눈 내리는 겨울이면 고층 빌딩 사이 험포처럼 자리한
 창경궁을 더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곳, 행복정원.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와 교직원께 선물하는 작은 여유입니다.



“15년을 함께한 행복정원처럼, 환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박지영 /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진료행정팀



(왼쪽부터) 박세은, 박윤정, 허성주 팀장, 우지혜, 박지영, 이영우

서울대학교암병원 4층에 있는 옥외공간, ‘행복정원’을 아시나요? 2011년 3월 개원과 함께 조성된 곳으로 창경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일품입니다. 덕분에 행복정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병원에서 이런 경치를 볼 수 있어 좋다”, “잠시라도 마음이 편해진다”라고들 하십니다. 저를 비롯한 구성원들도 바쁜 업무 중 잠깐씩 들러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니,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여유를 주는 공간이죠.

소중한 만큼 정성껏 가꿔왔지만 15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사이, 손봐야 할 곳들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누수가 발생해서 진료실에 계신 선생님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방수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행복정원의 가장 큰 매력인 창경궁 조망을 살린 것도 이번 리모델링의 핵심입니다. 정원 울타리를 유리 펜스로 바꾸고 그늘막과 편안한 벤치도 새로 마련해서,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며 쉴 수 있게 했고요. 건축과, 설비과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준 덕분입니다.

정성을 듬뿍 담은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행복정원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봄에는 화사하게 만개한 꽃을, 가을에는 짙은 단풍을 즐기실 수 있지만 저는 눈 덮인 창경궁을 감상할 수 있는 겨울 풍경을 추천드립니다. 행복정원만이 아니라 1층과 3층에도 쉬어 가시기 좋은 테라스 정원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암진료행정팀은 이렇게, 공간을 가꾸고 환경을 개선하는 업무는 물론 서울대학교암병원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진료통계부터 공간 조율, 홍보, 학술행사 기획 등이 포함되죠. 조금씩 다른 업무들이지만 목표는 한 곳으로 수렴됩니다. 위중한 상태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환자 중심의 환경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구성원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UOM

쉽 없이 뛰는 하루, 전통을 잇는 발걸음

글. 최주연 사진. 황필주 79studio

2025 vom winter

Doctor's day



순환기내과 양석훈 교수의 24시

‘어떤 경우에도 환자 몸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의료진이라면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을 이 명제는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의 절대적인 행동 원칙이다. 덕분에 그 어떤 진료 과보다 엄격하지만, 그 원칙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쌓았다. ‘제17회 LG화학 미래의학자상’을 수상한 양석훈 교수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선배 교수님들께서 쌓아온 기반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환자에서 출발해 환자로 향하는 연구

양석훈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관상동맥질환을 얼마나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천착해왔다. 흔히 관상동맥질환에서는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기준으로 치료 여부를 판단해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똑같이 혈관이 70% 협착된 환자라도 위험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병변이 생긴 위치나 혈관 상태, 개인의 건강에 따라 치료 선택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양석훈 교수는 이 차이를 읽어내기 위해 영상 진단과 혈류생리학적 검사를 결합했다. 단순히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가가 아니라 그 병변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가를 파악하는 연구다. 그 결과 25편 이상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고 대규모 다국적 공동연구에 참여하며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 발전에 기여해왔다. '제17회 LG화학 미래의학자상'은 그 결실 중 하나다. 하지만 그는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인터벤션 분야 교수님들께서 오랜 시간 구축해 오신 연구 기반 덕분"이라고 말한다. 순환기내과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환자 데이터를 모으고 함께 추적 관찰해온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환자의 필요에서 출발해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도 그 전통에서 비롯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이 건네는 "갑자기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연구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환자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이 양석훈 교수가 수많은 스승들에게 배운 가르침이다.

8:20am



7:40am



Q. 오전 내내 시술실에 계시나요?

A. 네, 여섯 분 시술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환자분의 혈관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혈관이 석회화되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갈아내는 등 여러 복잡한 기법이 필요하니 한 분당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Q. 바빠 걸어가시네요.

A. 텔레컨퍼런스가 좀 길어져서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 산업체와 AI 기반 심전도 분석을 통한 허혈성 심질환 예측 연구와 관련한 기술적 세부 사항과 향후 임상 적용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8시 30분부터 스텐트 시술이 있으니 그 전에 회진을 마쳐야 해서 서두르는 중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회진은 하루 두 번씩 꼭 하려고 하거든요. 아침에는 오늘 시술할 환자분들 상태를 확인하고 저녁 회진에서는 시술 받은 환자분들 예후를 살피죠. 시술하는 진료과인 만큼 전후를 직접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_____ **시술 시에는 항상 팀으로 움직이시나요?**

A. _____ 그럼요. 저 혼자 한다고 생각해보면 적은 없습니다. 여러 교수님, 전임의,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역할을 맡으시고, 복잡한 케이스일 때는 선배 교수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장 혈관을 직접 다루는 시술이다 보니 정말 사소한 차이 하나로 뜻밖의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순간을 직접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게 됩니다.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수가 훨씬 더 크게 남을 테니까요. 그러니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팀 전체가 협력하는 게 당연합니다.



12:40pm

2025 vom winter



Q. _____ **시술 끝나자마자 외래로 가시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A. _____ 시술 후 보호자분께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서 답변해 드렸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 말이 좀 길어지네요. '관상동맥'이라고 하면 용어는 익숙해도 뜻을 정확히 알기 힘들시니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라고 표현하는 식이죠. 그러다 보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만, 보호자나 환자분들 입장에서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는... 외래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 일단 진료실로 가야 할 것 같아요.

Q. 오후 진료도 조금 지연되었나요?

A. 환자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의사와 환자는 함께 치료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제가 가진 의학적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고, 환자분이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스스로 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합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진료과 교수님들께서 환자분들과 함께 모니터를 보시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어디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는지 직접 확인하면 훨씬 쉽게 이해하시니까요. 특히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흔히 '가슴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증상은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것이라서 잘 파악해야 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슴이 아프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를 알아야 정말 심장 때문인지, 심장 문제라면 얼마나 위급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진료가 지연되면 다음 분들이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17:30pm



Q.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A. 가슴을 부여잡고 오신 30대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속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소화제 처방을 받으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결국 응급실로 오셨어요. 30대의 경우 심근경색을 의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검사 결과 혈관 중 하나가 90%나 막혀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했더니 바로 좋아지셨어요. 이전까지 가슴 아픈 증상에 때문에 퇴사까지 고려하셨는데 시술 후 일상으로 복귀하셨고요. 이런 경우를 접할 때마다 선입견을 갖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환자분마다 상태가 다 다르니까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도 필수죠.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언제, 어떤 병변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Q. _____ 이제 퇴근하시나요?

A. _____ 저녁 식사하고 오늘 시술 받은 분들 상태 확인하고 내일 시술 받을 분들 뵈러 가야죠. 그리고 나면 연구실로 가서 논문 작업을 좀 하다가 집에 갈 것 같네요. 사실 연구는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앞선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성과를 쌓으셨지만 아직 해야 할 게 정말 많아요. 올해 만난 어르신 두 분 사례가 특히 그랬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신 90세 어르신께서는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었는데 투석 이력이 있는 86세 어르신께서는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같은 고령 환자이고 같은 증상이라 해도 방침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분들을 뵈 때마다 환자 개개인의 위험도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연구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동시에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환자들을 위해 쌓아온 성과에 돌멩이라도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지키며 성장하는 의학자

양석훈 교수는 전공의 시절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가 심혈관 조영술과 중재시술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며 순환기내과의 가치에 매료되었다. 특히 진료부터 시술 후 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역동적인 면모는 피로마저 잊게 하는 동력이다. 과정은 물론 쉽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는 규율과 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진료와 교육은 물론이고 논문을 쓸 때도 환자나 다른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편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선배 교수님들 스스로도 그런 잣대를 지키고 계시고요. 덕분에 해외 학회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가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보고 배우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UOM

양석훈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관상동맥질환의 정밀 예측을 위한 중개연구를 수행해왔다. 영상 진단에서 얻은 병변의 형태학적 정보와 혈류생리학적 검사를 결합해 환자 개개인의 실제 위험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형태학적·생리학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해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5편 이상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고, 여러 대규모 다국적 공동연구에 참여하며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7회 LG화학 미래의학자상을 수상했다. 현재도 영상·생리학·인공지능을 결합한 예측 기반 심혈관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 힘쓰고 있다.

혁신적 접근으로 치료의 시작점을 바꾸다

김봉년 교수 연구팀 / 조영민 교수 연구팀

Pioneer



*AI-Based Autism
Detection at Home*

집에서 촬영한 1분 영상으로 자폐 조기 선별의 길을 열다

김봉년·김영곤 교수 연구팀(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융합의학과)

『npj Digital Medicine
(네이처 자매지, IF: 15.1)』 게재

2025.9	홈 비디오를 통한 자폐장애 조기선별 도구의 개발연구
2025.8	음성과 평가척도를 활용한 자폐장애 선별도구 개발연구
2025.3	자폐스펙트럼장애 디지털 헬스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반 선별·진단보조·예측 기술 개발 연구의 2단계 연구 착수(~2028. 12월까지 2단계, 이후 3단계 연구 논의)
2024	자폐 디지털-바이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연구: 조기 선별을 위한 도구 뇌영상기반 자폐 진단 가능성 확인- AUROC 85%, 예민도 83%, 정확도 91%
2021	자폐스펙트럼장애 디지털 헬스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반 선별·진단보조·예측 기술 개발 연구 착수 -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지털-바이오데이터를 통합한 자폐-고위험군-건강군 코호트 구축 완료

‘가정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AI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장애 조기 선별모델 개발’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는 조기 진단과 개입이 예후를 크게 좌우합니다. 만 2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언어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형병원 진단 대기만 1~2년이 걸리고, 미국도 평균 진단 연령이 54개월입니다.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구나 기존 검사는 전문가가 장시간 대면 평가를 해야 하고, 보호자 설문은 정확도가 낮아 조기 선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관찰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12개월 전후부터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 아동의 특징에 주목한 것입니다. 자폐 아동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성인의 동작을 모방하지 못하며, 놀잇감을 주고받는 데 서툰다. 이런 신호는 진료실보다 집에서, 전문가보다 주 양육자가 먼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 부모가 집에서 세 가지 간단한 과제를 촬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부르기, 모방, 공놀이를 각각 1분 이내로 촬영해 모바일 앱으로 전송하면 AI가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생후 18~48개월 아동 510명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세 과제를 종합한 모델은 AUROC* 0.83, 정확도 75%를 보였고, 한 편의 영상 분석에 평균 14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AI는 특히 자폐 아동이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

이 늦고 눈 맞춤 시간이 짧으며 부모 개입이 자주 필요하다는 특징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AI가 놓친 사례는 대부분 증상이 경미한 아동이었는데, 자폐로 확진되기에는 애매하지만 발달 지연 등 위험 신호를 보이는 ‘경계성 아동’이었습니다. 이는 자폐가 명확히 구분되는 질환이 아니라 스펙트럼 성격을 갖는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델은 전문 진단 도구 대비 95% 이상 정확도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연구 목표에는 부합합니다. 진단이 아니라 선별, 즉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가 평가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1차 선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현재 18~48개월 영유아 1,280명의 발달력, 진단 평가, 디지털 평가, 뇌영상,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 추적관찰을 통해 경계성 아동과 자폐 아동의 분기점을 찾고, 어떤 요인이 회복·지속·악화에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조기 선별뿐 아니라 예후 예측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목표는 2027년까지 조기선별 의료기기를 상용화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찍은 짧은 영상으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 AUROC: 자폐 아동과 정상 발달 아동을 구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워질수록 신뢰도가 높음

세포 노화를 겨냥한 당뇨병 치료의 새 길

『실험 및 분자 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IF 12.9)』 게재

- 2025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팀, MOTS-c가 췌장 베타세포 노화를 타겟팅해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발병 예방 또는 지연 효과 입증
- 2021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팀, MOTS-c가 면역세포에 작용해 제1형 당뇨병 발병 예방 또는 지연 가능성 확인
- 2015 미토콘드리아 유래 펩타이드 MOTS-c 발견,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 작용 규명
- 2007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와 일본 연구팀, 특정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와 당뇨병 연관성 규명

조영민 교수 연구팀(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제1저자 공병수 박사)

‘미토콘드리아 펩타이드 MOTS-c의 베타세포 노화 억제 효과 규명’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형 당뇨병은 면역 세포가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자가면역 질환이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에 기인합니다. 발생 기전은 다르지만 당뇨병 치료는 오랫동안 혈당 조절이나 면역 억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1형 당뇨병에서는 자가면역 반응을 막기 위해 다양한 면역 억제 치료를 시도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1형과 2형 당뇨병 모두 췌장 베타세포의 노화가 공통 발병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노화된 베타세포는 염증 물질을 분비해 주변 베타세포까지 손상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연구팀은 이 노화 과정 자체를 막으면 당뇨병 진행을 근본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법을 찾는 과정은 퍼즐 맞추기와 같았습니다. 2007년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팀은 일본 연구팀과 공동으로 특정 미토콘드리아 DNA가 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기전은 알 수 없었습니다. 8년이 지난 2015년 미국 남가주 대학 연구팀이 미토콘드리아 유래 펩타이드 MOTS-c를 발견하고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2007년 발견한 DNA 변이 부위가 바로 MOTS-c를 만드는 곳이라는 연결고리를 발견했고, 2021년 MOTS-c가 면역세포를 조절해 1형 당뇨병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마침내 MOTS-c가 베타세포 노화 자체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MOTS-c는 베타세포의 ‘가속 노화’를 막습니다. 노화는 원래 천천히 일어나지만, 베타세포는 염증이나 대사 스트레스를 받으면 훨씬 빠르게 늙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의 베타세포는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려고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계속 공부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MOTS-c는 이 가속 페달에 브레이크를 걸어 베타세포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막고, 노화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번 연구는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을 ‘혈당 조절’에서 ‘세포 노화 제어(senotherapeutic 세노테라퓨틱)*’로 전환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베타세포가 왜 망가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MOTS-c는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근본 원인을 치료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GLP-1** 계열 당뇨병 약제와 병용 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실제로 MOTS-c 유사체는 이미 지방간과 비만 치료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으로도 연구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18년에 걸친 연구 여정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UOM

* 세노테라퓨틱(senotherapeutic): 노화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
 ** GLP-1(Glucagon-Like Peptide-1):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에 관여하는 호르몬



*MOTS-c Peptide
for Diabetes Treatment* 33

로봇 폐이식 수술은 스타트렉의 영웅 스팍에게 장수와 번영을 가져다줄까?

논리 영웅을 쓰러뜨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장수와 번영이 있기를(Live long and prosper, LLAP)!”

1966년 첫 방영한 미국 SF 드라마 시리즈 <스타트렉: 오리진 시리즈(Star Trek: The Original Series)>에서 레너드 니모이(Leonard Nimoy)가 연기한 스팍(Spock)의 대사다. 스팍은 뾰족한 귀를 가진 외계 종족 발칸인(Vulcan)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캐릭터다. 감정을 철저히 억제하고 논리와 이성만으로 판단하는 발칸인의 특성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감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뛰어난 분석 능력으로 엔터프라이즈호(USS Enterprise) 동료와 인류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스타트렉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냉철한 영웅’인 스팍을 연기한 레너드 니모이가 현실 세계에서는 약 37년간 피워온 담배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다. 오랜 흡연이 손상시킨 폐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고 결국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으로 2015년 2월 27일, 83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이다.

말기 폐질환의 최후 치료법, 폐이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도와 폐 조직의 염증 및 손상으로 공기 흐름에 문제가 생겨 호흡곤란, 잦은 기침, 가래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흡연이 주된 원인으로, 흡연 이력이 있다면 금연 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 한편 제한성 폐질환은 폐 조직 자체가 딱딱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폐섬유증이 대표적이다. 2023년 미국 장기 조달 및 이식 네트워크(OPTN/SRTR)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폐이식 환자의 약 83%가 이 두 가지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제한성 폐질환이 말기까지 진행되면 약물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폐이식이 최후의 치료법으로 권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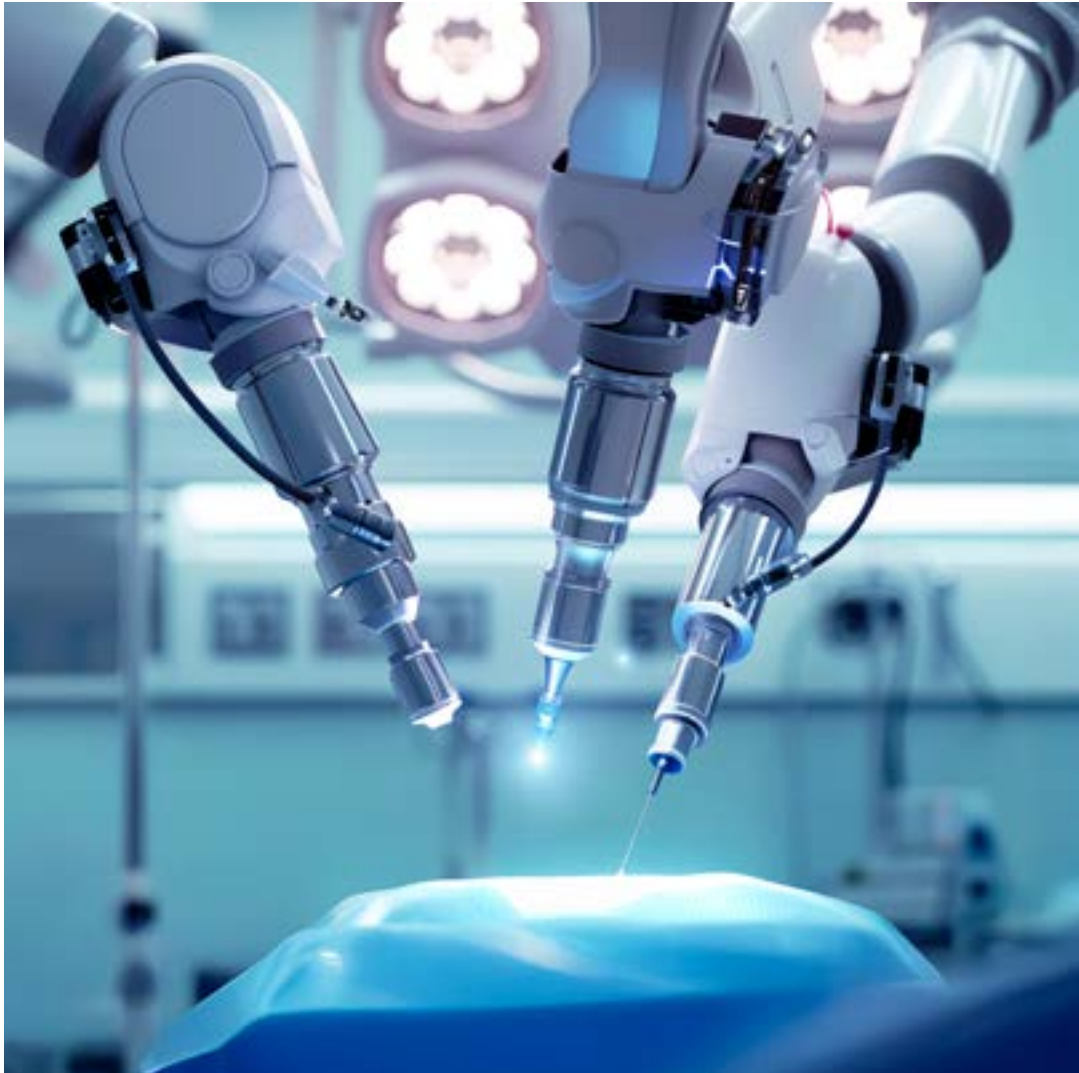
문제는 폐를 이식하기 위해 가슴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양쪽 폐를 모두 이식할 경우, 한쪽 거드랑이부터 반대쪽 거드랑이까지 흉골을 절개해 흉부 중앙을 전부 열어야 한다. 조개껍데기가 열려 속살이 드러나는 모양과 비슷하다는 뜻에서 ‘클램셸(clamshell)’이라고 불린다. 이 방식은 폐에 접근하기 쉽지만 흉골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 위험이 높고, 통증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폐이식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자들이 절개 부위 최소화를 고심해 온 이유다.

최소 침습을 향한 끝없는 도전

세계 최초로 로봇 폐이식에 성공한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시더스-사이나이(Cedars-Sinai) 메디컬센터다. 이 병원은 대규모 개흉 방식인 클램셸 대신 작은 절개만으로 폐이식을 하는 최소 침습 기법을 개발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의사가 손으로 복잡한 혈관과 기도를 연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진은 다빈치(da Vinci) 로봇 수술 시스템을 도입했다.

로봇 폐이식의 세 가지 장점 때문이다. 첫째, 로봇 팔에 탑재된 특수 손목은 인간의 손보다 작동 범위가 넓어 곡선과 직선이 복합된 장기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최적의 봉합을 위해서는 조직에 대해 정확히 45도 또는 90도 각도로 바늘을 삽입해야 하는데, 로봇 팔이 이를 정밀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고해상도 3D 영상으로 실시간 수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영상 보조 흉강경 수술(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VATS)도 시각화할 수 있지만 2D 기반이라 혈관 연결 같은 복잡한 수술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3D 고해상도 영상은 바늘의 깊이와 각도를 훨씬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의사가 인체공학적으로 편한 자세로 수술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환자가 누운 침상 옆에 서서 수술해야 했지만, 로봇 수술

서울대학교병원, 국내 최초 로봇 폐이식 성공 로봇 폐이식은 병원 전체의 협력 시스템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한 고난도 수술이다. 특히 서구형 체형에 최적화된 로봇 시스템을 좁은 흉곽 구조를 가진 한국인에게 적용하려면, 수술 부위 접근 경로부터 로봇 팔 조작 범위까지 모든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25년 6월, 폐섬유증으로 중증 호흡곤란을 앓아온 66세 환자에게 국내 최초 로봇 폐이식을 시행해 성공했다. 8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다빈치 로봇으로 손상된 폐를 제거하고 기증받은 폐를 이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환자는 현재 산소 공급 없이도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 중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다학제 협진과 풍부한 장기이식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말기 폐질환 환자들에게 로봇 폐이식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은 콘솔에 앉아 조종하며 진행되는 데다 손 떨림을 자동으로 보정해 더욱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

이러한 로봇의 장점을 활용해 시더스-사이나이 메디컬센터 의료진은 2023년, 69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로봇 폐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6cm의 주 절개부를 통해 손상된 폐를 제거하고 공여자의 폐를 이식한 것이다. 환자는 수술 후 11일 만에 퇴원했고 18개월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회복했다. 로봇 폐이식의 시대가 열린 순간이었다.

좁은 흉곽의 한계를 극복하다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25년 6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국내 최초로 로봇 폐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병원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고난도 수술 성공으로 국내 말기 폐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이번 사례는 특히 좁은 흉곽 구조를 가진 한국인 환자에게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반적으로 로봇 폐이식은 서구형 체형에 최적화된 기술로, 체구가 작은 동양인에게는 수술 부위 접근이 어렵고 로봇 팔 조종이 제한적이어서 까다로운 시도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약 8시간에 걸쳐 다빈치 로봇으로 손상된 폐를 제거하고 기증받은 폐를 이식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수술간호과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협

력해 이룬 성과다. 수술을 집도한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샘이나 교수는 “체구가 작은 환자에게도 최소 침습 로봇을 활용해 정밀한 폐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중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폐이식 외에는 치료법이 없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말기 폐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것이다.

영웅의 유산, 의료진의 도전

로봇 수술을 받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 레너드 니모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80세가 넘었지만 스타트렉 시즌 2 에피소드 〈면역 증후군(The Immunity Syndrome, 1968)〉의 스팍처럼 멋지게 말년을 맞았을 것 같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스팍은 거대 아메바 생명체와의 전투에서 셔틀크래프트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로 진입해 중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정보 덕분에 엔터프라이즈호는 은하계를 구할 수 있었다. 로봇 폐이식으로 새 생명을 얻은 레너드 니모이 역시 손을 들어 “장수와 번영이 있기를!”을 외치며 말기 폐질환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신저가 되었을 것이다. 스팍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지의 생명체를 탐험했듯, 의료진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은 오늘날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 UOM



레너드 니모이(Leonard Nimoy)가 연기한
〈스타트렉: 오리지널 시리즈〉의 스팍(Spock)

살덩이_FUNKY SCIENCE,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서강대학교에서 분자면역학,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Science communication and public engagement를 전공했다. 직접 그린 캐릭터로 생명과학 기반의 여러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리를 ‘할아버지’ ‘할머니’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아시아 소아의료를 이끈 40년, 세계를 향한 새 출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개원 40주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2025 vom winter

1985년, 개원과 함께 ‘어린이만을 위한 병원’이라는 낯선 개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전문 진료장비와 치료 프로토콜을 도입하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양성했습니다. 소아암·심장질환 통합 치료체계를 완성한 2000년대, 희귀질환센터를 개설한 2010년대를 지나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CAR-T 치료제를 병원에서 직접 생산하며 소아암 치료의 새 지평을 제시했고 2023년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를 개소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가족에게도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33만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1만 건 이상의 소아수술을 시행하며 아시아 18개국 421명의 의료진에게 첨단 술

기를 전수해온 병원. 2025년 미국 뉴스위크는 그 헌신을 인정하며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아시아-태평양 최고 어린이병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에 미국·캐나다·일본·홍콩 등 세계 주요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소아의료의 기준이 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은 AI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과 희귀질환 치료 확대, 아시아 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다음 40년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 그 중심에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치료의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저소득층 환자지원기금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의 내일에
힘을 보태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온라인 후원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함께 걸어온 140년, 내일을 향한 약속

2025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의 밤

2025년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의 밤

함께한 140년 함께할 내일

SNUH 서울대학교병원발전후원회

2025년 11월 1일
25 발전후원의 밤

Donation View

지난 10월 1일 저녁,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이 따뜻한 박수와 미소로 가득 찼다. '함께한 140년, 함께할 내일'을 주제로 열린 2025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의 밤이 열렸기 때문이다. 행사에는 오병희 발전후원회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 인사와 후원인 250여 명이 자리했다. 병원의 역사와 후원인들의 헌신을 기리고 미래 의료의 비전을 나누는 이 자리는 지난 세월의 감사와 내일의 약속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1장 역사를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곁을 지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향해 걸어온 것은 후원인들의 뜨거운 지지 덕분이다. 이들의 성원은 분주했던 낮을 지나 진료실의 불이 꺼진 후나 새로운 하루를 맞기 전, 서울대학교병원 구성원들이 잔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왔다. 후원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는 믿음의 동행인 것이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는 후원인들이 보내온 마음이 꼭 필요한 곳으로 가 닿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 미래 비전을 만드는 병원발전기금부터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난치병 연구, 환자들을 위한 진료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펼쳐온 것이다.

10월 1일 열린 '2025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의 밤'은 이 모든 이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리셉션이 시작된 오후 5시 30분, 로비 한편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뿌리인 제중원 140주년 기념 전시가 후원인들을 반겼다. '제중원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1885년 제중원 설립부터 오늘날 첨단 의학 연구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이 걸어온 길을 한눈에 확인하게 한 것이다. 덕분에 역사적인 흑백 사진 앞에 선 후원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자부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140년 역사가 과거가 아닌, 현재로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2장 오늘을 함께

무대의 조명이 켜지며 행사의 본무대가 시작됐다. 오프닝은 안무가 제이블랙과 댄서 크루의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막을 올렸다. 기계적 리듬과 인간의 움직임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연은 서울대학교병원의 혁신과 미래 의료의 역동성을 상징하듯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오병희 발전후원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국가 의료의 중추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신 후원인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제중원 140주년을 맞이해 후원인과 함께할 수 있어 감회가 크다”라며 “의료 서비스 전 주기의 혁신적 발전을 기대한다. 시를 비롯한 기술의 변화 속에서 후원인들의 성원이 서울대학교병원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묵직한 약속을 전했다.

“올해는 제중원 140주년, 어린이병원 40주년, 발전후원회 20주년이 겹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이기에 국가적 책임감을 갖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140년은 더욱 견고히, 그리고 당면한 내일은 최선을 다해 걸어하겠습니다.”

만찬이 이어지는 동안, 후원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병원 관계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잔잔한 음악과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웃음이 여기저기서 번져 나왔다.



(위) 오병희 발전후원회장
(아래)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안무가 제이블랙과 댄서 크루의 오프닝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적 책임감을 품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140년의 세월을 견고히 쌓아온 것처럼,
다가올 내일 또한 믿음과 헌신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미래 비전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



최은화 어린이병원장

3장 내일을 함께

만찬 후에는 병원의 미래 비전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과 최은화 어린이병원장이 직접 무대 중앙에 올라 후원인들의 질문에 답하며, 병원의 비전과 계획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지난해 의료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후원인들의 신뢰와 응원이 병원 구성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한 뿌리가 되어준 연대와 후원의 가치를 강조했다. 최은화 어린이병원장은 후원에 힘입어 골수 이식에 성공한 어린이 환자의 이야기를 하며 감동을 전했다. “아이가 병원에서 돌잔치까지 하게 되었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돌잔치에서는 축구공을 집었죠.” 이어 “어린이병원의 병실이 작고 낡았다”라는 의견에 “7인실을 없애고 병동을 리모델링해, 아이들과 가족이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축하공연도 특별했다.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 가수 송가인이 차례로 등장했다. 서울대학교병원 후원회 홍보대사를 역임한 김소현·손준호 부부는 후원금과 재능 기부를 더해 서울대학교병원을 꾸준히 응원해 왔다. 두 사람은 이날 ‘축배의 노래’를 열창하며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가수 송가인은 트로트 메들리로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구성진 노랫가락에 관객들은 손뼉을 치며 화답했고, 행사장은 어느새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이날의 박수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다. 140년의 세월 위에 쌓인 신뢰, 그리고 내일을 향한 다짐이 아름답게 교차한 밤이었다. UOM



(위)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
(아래) 가수 송가인



Mini Interview



“나눔의 기쁨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이주민 후원인

예전부터 기부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다 가족의 이쁨을 겪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부는 제 삶에서 꼭 해내야 할 일로 자리 잡았어요. 지난해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에 첫 기부를 하게 됐고, 올해 8월 기준으로 누적 금액이 5억 원을 넘었어요. 금액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의료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모든 어린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기부는 어린이병원으로 이어갈 예정이에요. 기부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누군가의 희망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기부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경자 후원인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인연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함춘후원회'라는 이름도 없을 때였는데, 그저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당시에는 보육원 보낼 돈이 없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기부가 어느덧 제 삶의 일부가 되었네요. 기부 없는 삶은 이제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환해지니까요. 잘 되려고 기부를 한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기부를 시작한 뒤로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즐거운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받은 마음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김병관 후원인

친구의 권유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후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어린이병원도 적자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는 거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작은 손길이라도 보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이 하나

강경미 후원인

Donation Interview



쿠에른의 바자는 ‘고객과 함께 좋은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엄격한 품질 검수에서 탈락한 미세 스크래치 상품들을 모았다가 백화점과 손잡고 판매해 온 지는 꽤 오래되었다. 이를 쿠에른 단독으로 새롭게 기획해 ‘바자’라는 이름으로 열고 수익금을 서울대학교병원에 기부한 데에는 대표인 강경미 후원인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만난 순간

더솔라이브러리(대표 강경미)의 가족 신발 브랜드 쿠에른은 가족 본연의 멋을 살린 내추럴한 스타일과 편안한 착화감을 지닌 천연가죽 신발을 선보인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이 브랜드의 여정은 40년 전에 시작됐다. 강경미 후원인의 시아버지는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해 가죽 선정부터 라스트(신발 모형) 제작, 핸드 소잉까지 모든 과정에 완벽을 추구하면서 수십 년간 유럽 가죽신발 브랜드와 협업해 왔고, 그 경험과 기술을 이어받은 아들 부부가 독립적인 사업체를 설립해 쿠에른을 론칭한 것이다. 부부는 좋은 신발에 대한 열정에 더해, ‘우리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조금씩 담아갔다.

“시아버님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기부해오셨어요. 저희 부부에게 늘 ‘세금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하게 만든다면, 기부금은 그 시스템 중에서 소외되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윤택유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부해도 돌아오는 게 없을 수 있지만, 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네 가족과 동료들에게는 언젠가 전해질 거다’라는 말씀도요.”

나눔의 방향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향하게 된 것은 강경미 후원인이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후다.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동 생활을 하면서 마주한 광경이 강경미 후원인의 가슴을 요동치게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생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침 병원 한쪽에서 코로나19 관련 사진전이 열리는 중이어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모습을 사진으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조성된 병동 지하공간에서 만난 아이들은 강경미 후원인의 마음을 시리게 했다. “저도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라서 링거를 꽂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제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과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후원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강경미 후원인 부부는 ‘쿠에른 스크래치잔’을 ‘쿠에른 바자’로 새롭게 기획해 2023년 2월 문을 열었다. 고객 12,000명이 참여한 바자의 수익 가운데 본원 발전기금 1억 원, 어린이환자 지원기금 1억 원 총 2억 원을 서울대학교병원 후원금으로 기부했다. 약 2년 뒤 열린 두 번째 바자에서도 수익 중 2억 원을 또 한 번 서울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

“바자 수익금은 고객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신발 판매로 모인 수익금이 좋은 일에 쓰인다는 사실을 고객도 알고 구매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후원처를 신중하게 골라야 했고, 제가 입원했을 때 겪은 경험과 더해져 서울대학교병원을 선택했습니다.”

바자 행사는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기획부터 실행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쿠에른 직원들에게는 평소보다 업무 강도가 훨씬 높아지는 힘든 이벤트다. 전국 25개 전국 매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 판매 직원, 그리고 본사 및 물류 직원 모두가 모여 바자 행사를 준비하는데, 영업 시간이 끝난 뒤에 모여 신발을 행사장으로 옮길 땐 겨울 추위까지 겹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쿠에른이 만든 가죽 신발이 고객의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것처럼, 쿠에른이 기부한 후원금이 질병으로 인해 일상을 벗어난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자의 동력은 쿠에른 직원들입니다. 앞으로도 바자를 통해 후원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지만 직원들의 노고 없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자의 의미를 직원들과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미 후원인이 서울대학교병원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자리에 직원들 여럿과 동행한 것도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였다. 뿌듯함과 만족, 혹은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을 직원들도 느낀다면 힘들지만 다시 해내고 싶은 마음의 동력이 일어날 테니 말이다.

쿠에른 바자는 계속된다

쿠에른은 별다른 광고나 스타 마케팅 없이 입소문으로 팬덤을 형성하며 10년간 큰 성장을 일구었다. 강경미 후원인은 ‘편안함과 우아함의 공존’이라는 본질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그려가게 될까.

“현재 가장 큰 관심은 ‘글로벌’인 것 같습니다. 성수에 매장을 연 이후로 외국인 고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좋은 신발을 사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국적도 아주 다양해요.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겠지만, 좋은 신발은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해외 쇼핑몰 등에서 입점 문의가 계속 오고 있지만 아직은 선불리 움직이기보다 시장을 파악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중이다. 강경미 후원인은 앞으로 열릴 바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 지금은 한국 고객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바자를 찾는 외국인이 늘어날 텐데, 그들에게 쿠에른의 브랜드 철학과 바자의 의미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단순한 할인 행사가 아니라 고객과 함께 사회에 공헌하는 자리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싶어요. 구매하면서 뿌듯하고, 좋은 일에 동참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요.” 행사장 한쪽에 서울대학교병원에 후원한 내용을 소개하는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기획 단계부터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고민해볼 만한 아이디어는 없을까. 강경미 후원인은 벌써부터 다음 바자의 밑그림을 그리느라 분주하다. 쿠에른 바자는 편안하고 우아한 쿠에른의 가족 신발처럼 요란하지 않지만 명확하고 화려하지 않되 아름다워야 하기에. UOM





“바자에 다녀간 고객들이
작성한 후기를 살펴보면
‘좋은 일에 동참한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았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고객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라
뿌듯함이 더 큼니다.”





소아 희귀질환 환자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2025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연구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소아 희귀질환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과 N-of-1 임상시험'을 추진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 지원 R&D 사업으로, 4.5년 동안 최대 147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병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ASO(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술을 활용해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제를 설계·생산한다. 본 연구는 소아 중증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희귀질환 치료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회 2025년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 성료

9월 25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제11회 2025년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다양한 부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관 내·임상윤리지원·성인 완화의료·소아청소년 완화의료·단기의료돌봄센터·아동학대 사례관리 등에서의 구체적 활동과 전문성을 제시했으며, '다양한 부서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패널 토의도 진행했다. 심포지엄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전공생 등 약 23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25 임상 데이터톤 개최 의료 AI 응용 확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 임상 데이터톤 2025'를 개최했다. 임상 데이터톤은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응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에서 개최하는 데이터 처리 경진대회로 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 서울대학교 의료빅데이터 연구센터,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공동 주최했다. '에이전틱 AI'를 주제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형 AI의 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에이전틱 임상시험 모사: 실제 데이터 기반 증거 생성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현 연구'를 수행한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중증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위한 '중증 모자의료센터' 개소

최중증 및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모자 통합치료체계를 갖춘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개소했다. 중증 모자의료센터에서는 산과와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 소아 협진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체계를 구축해 환자 상태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전국 권역별 센터 간 협력을 주도하며, 타 병원에서 응급 치료가 어려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해 치료하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보건 안전망 강화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국내 최초 진료지원간호사 표준 교육·수련체계 제시

11월 11일 제일제당홀에서 '진료지원업무 역량개발 심포지엄'이 열렸다. 진료지원간호사의 실제 업무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핵심 '위임가능전문직무(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EPA)' 12개와 단계별 교육·수련체계를 공개하는 자리였다. 이번 연구는 직무분석을 토대로 EPA 기반 단계별 교육·수련체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교육 편차와 역할 모호성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25년 전략연구과제로 '진료지원간호사 직무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TF'를 추진,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진료협력센터 30주년

환자 연속진료 이끄는 의료협력의 중심

진료협력센터는 11월 25일, 설립 30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중증·희귀·응급 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구축해 온 의뢰·회송 체계의 발전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센터는 지난 30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며, 환자가 치료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연속진료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환자가 치료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의료 AI Agent 플랫폼
'SNUH.AI' 공식 오픈**

자체 개발한 의료 AI Agent 플랫폼 'SNUH.AI(스누하이)'를 오픈하고 10월 29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의료 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한 결과다. SNUH.AI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자동화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진료의 효율성과 환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에서는 SNUH.AI와 AI Agent의 실제 적용사례, 최신 의료 AI 동향과 향후 발전 전략 등이 발표됐다.



**국제 컨설팅 결실
라오스 국립대병원 착공**

서울대학교병원이 건립과 운영 과정을 자문하고 있는 라오스 국립의과대학(UHS) 병원 착공식이 10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시에서 개최됐다. 이 병원은 라오스 최초의 국립대병원이자 400병상 규모의 현대식 종합병원으로, 28개 진료과와 특수 클리닉으로 구성되며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착공식에는 바이캄 카티야 라오스 보건부장관,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 서울대학교병원 이동연 국제사업실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21년 컨설팅 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와 운영을 비롯하여 인력 양성 등 병원 건립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이식 30년 이상
생존 환자 기념행사 개최**

장기이식센터가 11월 14일 제일제당홀에서 장기이식 수술 후 30년 이상 건강하게 삶을 이어온 환자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함께 한 30년, 다시 쓰는 생명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오랜 기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온 환자와 보호자를 초청해 노력을 격려하고, 이식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장기이식 후 30년 이상 건강한 삶을 이어온 환자 1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면역억제제 복용 준수 ▲규칙적인 운동 및 스트레스 관리 ▲일상의 기쁨을 잃지 않는 태도 등이 공통적인 건강 유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2025년 전국 소아청소년
온드림 신장캠프' 성료**

소아청소년 공팔센터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2025년 전국 소아청소년 온드림 신장캠프'를 개최해 만성콩팥병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대한소아신장학회와 함께 주관한 이번 캠프에는 환자 및 보호자 57명과 의사, 간호사, 약사를 포함한 의료진 21명 등 총 90명이 참석했다. 워터페스티벌, 명랑운동회, 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객실마다 투석백과 기계를 구비하고 정서적 지원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어린이병원 개원 40주년
간호학술대회 성료**

9월 30일 어린이병원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Leading Nursing, Changing Lives'를 주제로 간호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아동간호 역사를 돌아보고 최신연구를 공유하며 간호서비스 질 향상 등 미래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중증소아환자 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 공한 성과 ▲미국 아동간호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한국 아동간호 성장 로드맵 ▲아동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수준 ▲소아맞춤형 디지털기술 개발과 소아전문 간호 교육과정 세분화 등 과제와 비전 등을 다루었다.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소아청소년과 신충호·이영아·이윤정 교수, 구민정 교육간호사, 김지영 임상영양사, 오지혜·이엘림 사회복지사)이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학술제'에서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았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소아청소년당뇨병교실은 교육·연구·진료 및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페어' 성료

암정보교육센터가 9월 2일 암병원 서성환홀과 교육실에서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페어'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강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암환자와 가족의 현실적인 고민을 다룬 강의 프로그램과 암예방 OX 퀴즈, 가족 소통 활동, 컬러링·캘리그래피, 체중·마음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환자와 가족, 환우 자원봉사자, 강사와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제14회 암병원 연수강좌 성료

11월 9일 서성환홀에서 '뇌종양과 뇌장암'을 주제로 제14회 암병원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일차의료에서의 뇌종양 접근법', '뇌장암 바로 알기'를 주제로 세션을 나눠, 관련 의료진들이 강연을 진행해, 중증 암분야의 최신 지견과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됐다. 온라인을 통해 협력 병의원 의료진 및 관계자 등 약 270명이 참석했다.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수강좌를 개최하여 협력 병의원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환자중심의 유기적인 진료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급성기 완화의료병동 개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9월 26일 급성기 완화의료병동 개소 1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2015년 급성기 완화의료병동을 개소해 극심한 통증이나 호흡곤란, 복합적인 증상 악화를 겪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고난도 약물조정과 응급처치 등 적극적인 증상완화치료를 제공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사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간 협력강화모델을 제시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취약계층 대상 '모셔오는 건강검진' 성료

2025년에도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셔오는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강남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장수군 등 4개 협력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32명이 강남센터를 방문해 정밀 검진을 받았으며, 모든 대상자가 건강검진부터 결과 상담까지 전 과정을 완료했다. 특히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재검, 2차 상담, 진료 연계 등을 통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모셔오는 건강검진'은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기존의 '찾아가는 진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로 시작했다.



진단검사의학과 확장 기념식 개최

11월 12일 진단검사의학과 확장 이전 기념식을 열고 새롭게 조성된 검사실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개했다. 이번 확장은 기존에 오염·비오염 동선이 명확하지 않았던 구조를 개선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검체를 처리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조정연 강남센터 원장은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영양상담실 공간 재배치를 진행하며 진단검사의학과도 동시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시설팀, 행정팀을 비롯해 여러 부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해준 덕분에 지금과 같은 개선된 공간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식형 심장기기 시술 1,000례 돌파

9월 4일 심혈관센터에서 이식형 심장기기 시술 1,000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고난도 시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상전문성을 의미하며, 공공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 역량을 입증한 쾌거로 평가된다. 순환기내과 교수진과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이식형 심장기기 시술 1,000례 달성에 대한 축하와 함께 병원의 주요 성과 발표, 향후 진료 비전 공유, 현수막 제막식, 단체 기념촬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美 LA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운영지원 자문**

202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센터 설립 자문을 전담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지원 자문도 이어서 맡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10월 22일 미국 SL건강검진센터(SL Preventive Medical Center)와 LA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운영지원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SL재단(SL Christian Foundation)과 체결한 설립 자문계약의 후속 계약으로, SL재단이 LA에 개원하는 건강검진센터의 ▶개원 준비 ▶센터운영 ▶진료연계 ▶직원교육 ▶건강검진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전방위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신생아중환자실 확장'
집중치료 전담팀 구축**

11월 11일 고위험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기존 40병상에서 50병상으로 확장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권역모자의로센터이자 경기도 유일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이다. 이번 확장으로 병원은 이러한 핵심역할을 계속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최대 규모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게 됐다. 집중치료 전담인력도 강화해 7명의 전담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을 관리할 방침으로, 지속 증가하는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전원 의뢰에 대한 수용력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교직원 참여
소방훈련 실시**

9월 5일, 전 교직원이 참여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환자와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8층 내시경실 회복실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 진압 실패 시나리오에 따라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내시경실 회복실에서 진정 회복이 어려운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추가로 설정하여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지휘반, 진압반, 내·외부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40층 대피유도반 등으로 구성된 소방대 TFT가 화재 상황 발생 직후 신속하게 배치되어 안전한 대피를 지원했다.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
심포지엄' 개최**

9월 19일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서울케어-보라매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 심포지엄은 '통합돌봄시대, 건강돌봄네트워크사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립병원과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민간돌봄기관 등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의 과제와 지역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각 세션은 ▲통합돌봄 정책의 현재와 과제 ▲시립병원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미래 ▲통합돌봄시대, 시립병원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2025 보라매병원
공공의료 심포지엄 개최**

10월 20일 병원 4동 대강당에서 '2025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관성 그리고 혁신: 공공보건의료와 책임의료기관'을 주제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방향, 책임 의료기관 운영의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1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에서는 정책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으며 2부 '책임의료기관 운영의 현실'에서는 공공-민간 협력사례 공유가 이뤄졌다. 끝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비전과 현장 실행 간의 간극을 좁히고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보라매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방문석 교수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연임**

방문석 교수가 국립교통재활병원장으로 연임됐다. 임기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방문석 병원장은 2019년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을 위탁 받은 이후 병원장으로 재임하며 외상 재활 중심의 진료체계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외상 재활 분야 전문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전국 권역외상센터와의 연계가 확대되면서 전원된 외상 환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7배 증가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임상시험기관 승인, 재활의학과 수련병원 지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김거석 후원인

서울대학교병원에 '1 비트코인' 전달

김거석 후원인이 11월 11일, 비트코인 1개(약 1억 5천 7백만 원 상당)를 병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처음으로 접수한 디지털자산 형태의 기부로, 새로운 기부 문화를 여는 계기가 됐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김거석 후원인의 기부금은 약 10억 5천만 원에 달했다. 11월 11일 열린 전달식에서 김거석 후원인은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병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은 “뜻깊은 기부에 감사드립니다”라며, “디지털자산 기부 체계를 마련해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전 분야에서 투명하고 선진화된 기부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5년 발전후원의 밤' 개최

11월 20일, '2025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오늘을 함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병원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후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병원의 주요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은 “후원인들의 끊임없는 지지 덕분에 분당서울대병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미래의료와 헬스산업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라며, “후원인 여러분의 소중한 동행이 의학발전을 이끄는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분당서울대병원의 희망찬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후원회



이삭회

어린이병원학교에 1억 원 전달

이화여대 부속유치원 학부모 봉사회 '이삭회'가 11월 13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에 1억 원을 전달했다. 1975년 결성된 이삭회는 50년간 국내외 취약계층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후원금은 지난 9월 개최된 50주년 기념 바자회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주소영 이삭회 회장은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소중한 나눔을 진행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고 최은화 어린이병원장은 “건강장애 환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후원회



배정철 대표

저소득층 환자 후원금 1억 원 전달

배정철 대표가 9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에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1억 원을 전달했다. 1999년부터 고객 성금과 매출액 일부를 모아 후원해온 배정철 대표의 기부금은 올해까지 누적 23억 1천 5백만 원에 달했으며, 총 689명의 환자가 치료의 기회를 얻었다. 배정철 대표는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과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받은 사랑을 사회와 나누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은 “배정철 대표님의 소중한 나눔이 헛되지 않도록 환자 치료에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스누비안나눔회



성남상공회의소

1억 1천만 원 전달

성남상공회의소가 10월 30일 제15회 회원사 자선골프대회를 열고, 1억 1천 2백 80만 원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 후원금은 희귀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의 수술과 치료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전영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은 “기업인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아진 성금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배 성남상의 회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회원사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역대 최고액의 성금이 모였다”라며, “이번 성금이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명단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만 3개월) 10만 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을입니다. 자세한 후원 확인은 전화(02-2072-10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3억 원 이상

안태로

1억 원 이상

(주)좋은책신사고
(주)정우정밀화학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케이저엑스

KT&G

김거석

김경희

김선권

김수태

김한(Han Kim)

박영환

송익선

이건개

재단법인 인당장학문화재단

5천만 원 이상

(주)유한실버

(주)풍산

권경남

은희성

이승주

3천만 원 이상

이영술

1천만 원 이상

(재)최상화재단

(주)드모바일

권진희

김서지

김영재

김이태

김현진

문진수

박효신

송현걸

안길용

양복선

우일계전공업(주)

이영례

장대우

재단법인현우문화재단

정영선

정진철

조상희

주식회사 아리아나

최세일

허대석

5백만 원 이상

(주)대건상사

김정렬

등문건설(주)

앵커에티파트너스코리아유한회사

이보경

이주현

정유

최기순

한영민

1백만 원 이상

(주)원도이엔지

고병원

김경환

김수영

김왕겸

김재홍

김중선

오병희

장기용

최아이린
최효석

50만 원 이상

권명희

박영호

손우민

임정이

정진용

차민지

하은진

10만 원 이상

강지연

고은정

구동원

권춘자

김구호

김규현

김은미

김태현

김혜근

박기영

박근우

박남숙

박은하

박은희

배민석

백봉덕

안영실

안형국

양지희

염동현

우학천

유용재

이권열

이병희

이석범

이은영

이환수

임연순

정나래

정승라

정희면

진선호

진성엽

채현희

채혜원

최영

최은정

최창석

최창욱

하순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후원회**

1억 원 이상

김성주

김희영

더블유알씨(주)

이쌍희

5천만 원 이상

고혁주

변성윤

씨올다엔 주식회사

안주군 매바위 음압 장학회

3천만 원 이상

템퍼코리아 유한회사

1천만 원 이상

(주)보구정

강남식

김난령

김윤형

김윤호

다이노탕

미미썸의원광주점

박혁

서울대학교 EMBA 16&17기

소금도화

손준성

송현걸

신보영

신승주

오에스테크

이문형

이신재

이원경

이항덕

임호란

정윤선

조명순

조은희

지구레코드(주)

청계씨브 주식회사

최은

한솔섬유(주)

한효섭

5백만 원 이상

(주)건일화인테크

(주)미래와도전

고동욱

김정범

배세아

송창주

움(pieces of yunmi)

채주현

최선일

최진우

푸른안과의원

1백만 원 이상

(주)나루텍

(주)동아미디어플러스

(주)디피에스컴퍼니

(주)라이브아트

(주)신우엠엔비

(주)엠컬처컴퍼니

(주)우리산업

(주)케이자와

(주)태양이앤지

(주)티앤에이치

(주)플로우포스

(주)햇시즈너

KIM EUN JAE PHOEBE

LPGA 박성현 팬

강무삼

강용성

김유하

강중구

강철영

경다윤

고진영

고혜선

권오완

김기연

김나영

김남국

김동연

김동훈

김미림

김보연

김세미

김수현

김영재

김용태

김우진

김윤희

김주한

김지영

김호길

김홍근

나지현

남주기클럽

노미나

당신의 미래는 아름답길

데이비드갤러리

문하선

박다혜

박보영

박신기

박인성

박준수

박지혜

박태리

박태리

박현중

백유민

변테레사

부암길비

불정초등학교

성신양회(주)

성우주

성혜경

성혜민

송민기

송윤미

심유하

심유하

안현주

앵커에티파트너스코리아유한회사

어나더핸드

우정민

위재연

위지선

유동현

윤해원

은혜직물

이건희

이경석

이동혜

이설용

이승찬

이연옥

이용찬

이은혜

이재은

이중호

이재원

이혜영

이호중

임기봉

임동규

임세호

임수빈

임지혜

장기웅

장승훈

장정하

전경국

전수윤

장병수

정유정

정태화

정희빈

조계환

조성원

조은재

진용주

차상란

차상학

채유현

최낙용

최대일

최설아

최소영

최윤영

최인혁

최창욱

최혜민

하음

한우리회

한임길

형재환

형지유

황규호

황성원

황일정

황태룡

김은정
김은지
김은진
김은하
김응환
김인식
김재일
김재환
김정선
김정우
김정진
김정학
김종민
김중현
김주경
김주안
김주현
김준범
김준영
김준우
김준우
김지은
김지한
김지훈
김진숙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김진혁
김초연
김태리
김태우
김태웅
김태원
김태은
김하음
김한석
김해미
김현경
김현석
김현성
김현영
김현주
김현주
김형민
김혜리
김혜림
김혜수
김혜수
김혜영
김혜진
김호민
김화석
나용성
남경훈
남수호
남주영
남현정
노양현
노재욱
도도무용학원
도레미
도호정
류광형
류기원
류영욱
류은상
류지상
릴리벨리
명륜화원
모간스탠리증권
문경림
문선미
문성준
문이지
문정규
문정현
문현숙
문혜진

민경실
민순홍
민정인
민지수
박가림
박가은
박가현
박경필
박규리
박누리
박다정
박대남
박도걸
박동일
박두현
박매환
박모세
박미경
박민희
박상우
박상은
박상인
박새미
박선아
박선영
박선화
박성민
박성연
박성열
박성인
박성준
박성희
박세미
박세진
박세진
박세화
박소은
박수영
박수정
박수진
박순찬
박원호
박유미
박이동
박재범
박재순
박재은
박정수
박종상
박준동
박준성
박지영
박지원
박진석
박진수
박진호
박찬일
박창수
박채근
박현근
박형배
박호준
박희수
배성근
배수남
배지영
백나영
백선희
백유진
백재영
범명아
변호사서아람법률사무소
사계절 프로젝트 건축사무소
사공승철
사영훈
상의민
서금석

서만규
서민희
서용식
서유선
서정원
서창윤
서호영
석지혜
설승수
성민아
성지훈
성하울
성훈
손명선
손소연
손이준
손정현
손지아
솔밭 유한회사
송성인
송승하
송여진
송영환
송유주
송재성
송주영
송지현
송창준
송현미
송현희
송홍주
시도 스튜디오
신가희
신기철
신동규
신시내
신용하
신은지
신진경
신진호
신혜민
신혜원
심형섭
심혜승
아이디어스월드
안기환
안명수
안소연
안승윤
안윤상
안정미
알콩이네편집샵
양승엽
양재의
양청순
양태환
여희운
엄민정
엄인용
여해슬
연세에이스치과
연제현
염승한
영상의학과 전공의 일동
예미현
오광일
오명훈
오미정
오수정
오승한
오윤재
오재학
오정훈
오지움
우종임
우지현
원경연

원미현
원영자
원정담
원준연
위수현
윌팅트
유영은
유지성
유지안
유지한
유진희
유태석
유혜영
육은혜
육청미
윤도선
윤미영
윤보경
윤보영
윤서아
윤선영
윤성구
윤성영
윤송이
윤송애
윤여빈
윤인아
윤자영
윤재혁
윤재호
윤정하
윤지움
윤지현
윤지호
윤지호
윤혜리
윤혜정
윤희연
은수교통(주)
이경민
이경호
이길남
이대식
이대현
이대희
이도현
이동민
이범준
이병희
이상렬
이상민
이상준
이서윤
이서율
이서현
이석현
이선희
이성진
이성희
이수빈
이수진
이숙현
이순혁
이승수
이승수
이승찬
이승하
이승후
이영숙
이영희
이예린
이원정
이윤주
이은미
이은영
이은지
이은희

이인모
이인열
이인환
이재석
이재은
이점대
이정원
이정윤
이정훈
이제이
이주훈
이주희
이준웅
이지민
이지영
이창민
이철희
이하은
이하울
이향정
이현승
이현정
이현중
이혜수
이홍석
인채린
임근아
임나경
임대광
임우현
임유정
임재룡
임정현
임주하
임진선
임채호
임하정
임형진
임혜진
장선호
장소미
장술
장수정
장순자
장여정
장용준
장일모
장정원
장주원
장철혁
장한결
장한별
장혜영
전미선
전미화
전상진
전상학
전승욱
전영신
전영희
전예은
장광호
장갈수
정민경
정민희
정상안
정선민
정성아
정세진
정세현
정소연
정수미
정승재
정승혜
정시윤
정영재
정영진

정우영
정옥조
정원준
정원혁
정유선
정인서
정재명
정재훈
정종륜
정찬호
정창연
정해나
조미현
조병극
조석희
조연수
조윤아
조은상
조재열
조재홍
조정희
조태준
조현열
조혜영
조재민
조홍재
지선명
진설화
진소정
진승현
진아름
진여진
진형준
채명성
천민재
천예성
천예준
최민재
최신영
최수연
최수철
최연재
최영호
최예인
최옥선
최완수
최용
최유미
최윤
최윤선
최윤아
최윤철
최은숙
최은진
최재경
최재원
최재원
최재호
최진석
최진웅
최한승
최현식
탁혜윤
태화신역(주)
티구안이즈크
티다
하태욱
한경래
한경화
한기만
한덕수
한두희
한맥학원
한상동
한상영
한서인

이재협
이정만
임창섭
전혜원
조민준
채영준
최재성
홍윤호

장은선
염혜선
장희진
윤필영
이송국
이정옥
최창원
김종민
정우진
정영순
정창훈
김세현
이해원
최은영
서경진
윤연이
우혜린
정혜미
윤유석
최영화
강소현
장주승
이상남
정다위
배경덕
최선희
정숙향
김선혜
김세환
최성희
이준우
김광일
백남종
윤창진
세움세무회계사무소
강지훈
정부용
이정희
방진섭
변석수
손지현
최광현
강동완
주덕만
이지선
구지원
남동우
조영숙
조서영
박규형
송나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발전후원회**

1천만 원 이상
(재)임당장학문화재단
5백만 원 이상
손원현
(주)교보문고
1백만 원 이상
황정민
(사)관악구의사회
김선덕
10만 원 이상
김기봉
김영아
김영현
김채린
배기정
신중호
안정환
오소원
이요한

한지원
김명갑
이경자
최기
홍진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스누비안나눔회**

1억 원 이상
성남상공회의소

3천만 원 이상
주식회사 재권
이마 주식회사

1천만 원 이상
이민경
곽경주
장윤서
김홍숙

5백만 원 이상
익명
채수원

1백만 원 이상
최준용
주식회사 사마
(주)신승알엔티
박형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직원공회
정영배
최인선
정도자
이경엽
이윤희
이민정
이지호
표찬술
이소현
이용하

50만 원 이상
김복희
이경은
류주석
최병덕
김나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독교수회
주식회사 정우인테네셔널
이용호

10만 원 이상
김성숙
김지현
황은영
김은영
이한경
서정원
조정희
방수미
김관민
최기영
김준성
신성자
김진원
조구영
김동균
천준석
김응규
강지안
김재환
류은하
고정민
박정숙
정주

(주)인아
(주)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디오스산업개발 주식회사
문영주
박종연
윤주형
이근욱
이준태
(주)티오에프
(주)티오에프코리아
정찬동
(주)협화인천
홍광희
편한몸내과의원

5백만 원 이상
노영래-강정민
이진우
김나영

1백만 원 이상
서의진
김재현
성모월병원
유병호
박난경
변석수
이용구
박건우
이승빈
정영만
티씨엔코리아주식회사

50만 원 이상
장병근
채호성
김형호
변길무
나민욱

10만 원 이상
윤청하
이한나
강희경
김선중
김현자
김홍일
박남웅
박정숙
세움세무회계사무소
어혜정
유민경
이중상
장영호
김영근
허찬영
황상미
유승희
이현하
권현욱
강은자
강재섭
김선자
김세환
김윤희
박광희
배경덕
복점심
서예원
신다애
심진식
윤형기
임호섭
최은영
고성남
안희영
김범주

곽영호
김미옥
김미현
김석화
김홍한
김유리
김은영
김종욱
김지영
김지영
김현영
김희중
나윤경
박미희
박성준
박영주
백선하
서영주
서원혜
손석호
송인성
신선미
아이원투자일임(주)

안진
안혁
우상우
윤보영
이민희
이부리
이석규
이석운
이장호
이정은
이지미
이혜자
임성규
장명욱
장성일
장영우
장혜선
정미화
정수연
정지운
조수철
천은겸
최종혁
최창용
함정연
황미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3억 원 이상
점백스앤카엘
1억 원 이상
(주)진양기계
김순례
김효식
박두식
(주)이녹스

5천만 원 이상
이마주식회사
변동준
신광현
조순자

3천만 원 이상
김주인
(주)강남캐피탈
배기동
이석열

1천만 원 이상

한송이
한수현
한승현
한예지
한유일
한지연
한혜원
함지은
함혜진
허로나
허승원
허정임
현지호
홍경원
홍석표
홍성현
홍소의
홍영기
홍원지
홍유건
홍주혜
홍혜리
황소윤
황용승
황윤지
황은총
황희선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후원회**

20억 원 이상
정재은 가족

1억 원 이상
(재)권정순재단

1천만 원 이상
(재)블이원
강해근
(주)교보문고
김도희
김이태
박봉호
박해분
아란포레스트클래스
이경민
이승호 · 정국경
정지애
한상은

5백만 원 이상
익명

1백만 원 이상
김현정
송미정
이금희
이상근
조하린
(주)윤희상재
최의근
황호영

50만 원 이상
김수연
박혜윤
우종임
익명
(주)보성메탈
(주)에피파니모먼츠

10만 원 이상
강민주
강창현
고영일
곽영주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온라인 후원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등 어떤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후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어린이병원후원회	합춘후원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스누비안나눔회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발전후원회
문의	02-2072-4122	02-2072-3004	02-2072-0304	031-787-7000	031-787-1142	02-870-2174
예금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후원회	합춘후원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전 문의 필요
계좌번호	신한 100-020-920897	신한 367-03-023079	신한 100-008-864367	신한 100-020-751657	신한 100-019-706731	

서울대학교병원 후원인을 위한 예우 프로그램입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기부해주신 후원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울대학교병원이 마련한 혜택입니다.

Donation Guide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후원회원 성명 등재	건물 벽면							
	병원보, 매거진, 연보							
후원인의 거리-기부스토리 소개(개인후원회원)								
Honor SNUH인 제작-LED 전광판 패널(개인 후원회원)								
감사패 증정								
무료주차 (차량등록)	후원회원 또는 후원회원 가족							
진료비 감면 비급여 중 선택항목 50% (연간 300만 원 한도 / 회원 및 가족 합산)	후원회원 및 배우자							
	부모 및 자녀 (개인 후원회원)							
종합건강검진비 (검진 1회당 1매, 기한 내 사용)	후원회원 및 배우자 (연 각 1매 발급)							
진료지원	외래 예약상담							
	후원인 지원실 라운지 제공							
	응급의료 상담							
	입원 안내							
병원 간행물 제공								
기념품 제공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후원회(02-2072-10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SNUH Link Up

매거진 VOM 48호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연결하는
의료와 사회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다면,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정확한 의학 정보,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후원으로 응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더 깊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SNUH Link Up



서울대병원TV



▶ 조현병,
완치 가능할까?



▶ 제로 음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



▶ 겨울 여행,
동상과 저체온증
이렇게 예방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인스타그램



매거진 VOM 웹진



ISSN 2508-867X